



평양외대생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평양외대생 여러분들의 가방속엔 무엇이 들었을까

궁금해하며 방북 취재를 신청했던 것이

벌써 2년 전 98년의 일이군요.

세월은 훌쩍 가버렸는데 ‘꼭 학생들과 함께 가겠다’던 총장님도, ‘고려해보겠다’는 통일부로부터도 소식이 끊긴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연하장을 띄웁니다.

싸움의 때가 오면 등지를 부수고 나서는

전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새 장산꽃매에게 부탁해 평양외대까지

부다 못 가 땀길 바라며 연하장을 띄웁니다.

문화가 가까운 몇 해 안에는 우리 꼭 만납시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분단 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

모두모두 없애버립시다.

새천년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된 조국으로

높이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꿈을 심어줍니다.

을 한해도 건강하시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멀리서 평양외대생들을 그리며

남쪽의 친구들이 띄웁니다.



사설

새 즈문해 그 허와 실

분단 · 무분별한 세계화 논리, 타파해야

5.4.3.2.1...

새해를 알리는 숫자세기가 시작된지 이제 2001년 날지, 21세기 창간세기를 그칠 연호 속에서 꿈꿔왔던 희망의 새시대는 과연 오고 있는가? 언론, 정권에서 얘기하는 새시대는 민중의 요구만큼이 집결되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꼬리를 잇는 수많은 논점들 속에서 몇가지의 문제제기를 해 보고자 한다.

첫째,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민족 분단의 현실은 여전히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의 시작지대에 머물러 있다. 물론 남북관계는 냉전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신을 찾아야 한다. 형태적으로는 남북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체적으로는 남북과는 다른 양상의 관계라는 변수가 50년동안을 잠적해 왔다. 미국으로부터의 군 작전 지원과 안보 문제를 비롯, 한미군사협정, 한미행정협정, 주한미군기지 반환의 문제 등이 주류권 사이의 쟁점들 속에서 정면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관계자들은 오히려 그 모든 문제들을 미국의 편에 대로 추종하기에 급급해온 실정이다. 이런 2선간 남북관계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

역대정권에 비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번 있었다. 북한의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제의는 사실상의 당국자 회의를 의미했다. 북의 선형적인 요구사항은 국가보안법 폐지, 외세와 공조로 북을 압박하지말 것, 민간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것 등의 여러가지 요구사항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남북관계를 민족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보안법으로 민간인들을 억압하고 있는 채 문화체육교류 정도의 수준만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이익만을 쫓아가기 위한 경제교류를 시도 중에 있는 것이 고지이다.

이러한 내부부조조 속에서 남북관계는 당국자 차원에서 큰 변화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단지 문화체육 교류 및 경제협력 관계에서 민간차원의 한계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도의 상호교류는 북미관계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북·미간 정정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넘어가진 않으면 남북 당사자간 자율적인 회담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대기업 해체와 무분별한 외국자 투자 등 경제 부문을 통해 나타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프랑스 대표적 일간지 르몽드도 디플로마티크 주간지 베르디에 카를로스 케르세는 얼마전 한겨레와의 대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세계화의 결과를 보면 과격적이다. 이것은 유엔 기구들의 보고서만 보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부자가 늘어나면서 다른 한편으로 빈곤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세계 각처에서는 세계화 반대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역전의 반향'은 시애틀에서 구제화되었으며 우리들에게도 매우 고무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국제통화기금이나 정부의 대기업 해체와 대기업 민영화 등을 세계화에 발맞춘 경제정책은 지금의 한국사회에 어떠한 해결책을 내기는 힘들다.

셋째, 범민 행태에서 '나자만 투쟁'을 좌지우지 프랑스의 신년처럼 결단력이 필요하다.

세계, 이러한 무분별한 세계화 정책은 교육 부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교육적으로 추진한 120년정칙은 한국대학 구조의 기본 큰 고질적인 사명들을 부수기는 것 외에도 별다른 성과 없는 정책으로 판명되었으며 대학총장평가인정제 역시 실속없는 우수, 최우수 대학만을 남발하며 끝을 맺었다. 여기에 예산의 과잉이 교육재정 해체라는 문제와 얽혀 오고 있는 갈수록 좁아지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교육 정책, 학교 정책은 미온적인 한국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 미국의 교과사상, 제도 등을 일방적으로 이데올로기 50년 동안 한국교육의 미국화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개혁적인 요인들을 놓고 볼 때 난국을 타개하기 보다는 결국 남이 아니라 해내의 민족민주 세력이라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2000년 올해의 담판과제들은 민주쟁권조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 운동 활성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세기여의 탄압 속에서 굴하지 않고 무력투쟁 지대로 민중들은 여러 조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광범위한 계층을 두루에 하는 신장력을 보이고 있다. 우리 희망의 대안은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남발하는 하향된 구조를 대신 한사람 한사람의 각성으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21세기를 향해 도약해야 할 때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자

전해하고 존경하는 한국과학기술자대회 기조 여러분!

21세기를 수립 내적 산 인물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21세기에 진입해야 할 것인가?

사상중립적 역사관에 입각한 새 천년이라는 인식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민족사적 과제에 대한 인식에 바탕하여 분단 50년, 통일주구 50년이라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일은 21세기 초반의 주요한 민족과 과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새 세대를 세우며 맞이할 새로운 내면적 가치관을 가다듬고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난 1년만 동안은 놀이보듯 학과별 동원협력회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람은 외대의 큰 자력과 장점을 갖고 이해되고 외대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갖고 계셨던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하면 외대가 안정되는 가운데 개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가를 고민하셨다고 외대의 제2대 재직을 적극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주로 다음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학 개혁의 계속 추진과 안정적 발전에 대한 확고한 지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마련중인 중앙개발정책이 확정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단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자곡들의 그라비티 해체 여부가 해체쪽으로 판결이 나면 이의 개발 또는 그 효과적 적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장이시제대로의 전환에 대한 대비입니다. 물론 이 장이시제대로는 단순한 구제단으로 회귀나 구제단으로 환원한다고 해도 그것은 철저한 환골탈태를 그야말로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는, 그리고 개혁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이사로 구성되는 재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를 통해 대학수원들의 이해와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는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면서 21세기 세계의



(이사장 변영환)

특색화된 최우수 명문대학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외대발전을 위한 변화 · 개혁 필요

존경하는 변영환 이사장님, 그리고 전해오는 외대 가족 여러분!

우리 구상원 모두의 관심의 초점되었던 우리대학재단 이사회의 구성원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변형을 재단 이사장단인 유임되고 이사진 정원이 교체되었습니다. 새로 구상원 이사진 중에서는 학과에서 추천한 분이 많이 포함되어 학과정원을 도모하고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반동안은 민주발전의 계기와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시기였습니다. 우선, 우리대학 사학의 민주적인 모델 대학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지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구상원들의 대표로 이루어진 대학협의회의를 조직하고 제2차원칙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능력행진 및 예산 결산의 투명성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외대 전 구상원들이 대학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천년'이라는 외대의 명시를 통하여 외대의 대학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발전기금 10억을 약정할 수 있었으며 지금도 계속 청약자와 약정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작은 부분의 개혁을 시도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 · 보완하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큰 문제에 대한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삼남교원 채용규정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초에는 교수연구보조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LG재단연구원 경영컨설팅센터에서 우리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마련되고, 제2차원칙이었던 구제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총장으로서 몇 가지 절망 강요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년 중에 30명의 교수진을 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풍토를 조성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풍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교수 연구기 외의 교재개발비를 특별히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과 대립에서 벗어나 모든 외대가족이



(총장 조규일)

화합하고 힘을 합쳐서 외대 발전에 합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인 제가 외대 가족의 대 화합과 외대 발전에 앞장서고 구상원 역할을 하겠습니다.

교수협의회 학칙기구조,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교수협의회 회장 김대성, 일본어과 교수)

그러나 2000년은 결코 1999년과 단절되어 있지 않은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당장 새 학기를 앞두고 지난 1년 구제단 분류 과정에서 생긴 구상원들의 불화와 갈등은 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구상원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화합이 이뤄지지 않고 학과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생각과 방법의 차이는 있더라도 '외대 발전'이라는 대의는 살아 있어야 하며 이를 공동체'라는 의식은 공유해야 합니다.

또 작년 해내 소주의 원인이 됐던 신규 교수 채용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교원인사 규정이정연구위원회와 교원신규임용심사위원회를 마련한 이상, 급급적 빨리 교수들의 충의를 끌어 이를 확정짓기 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21세기의 대학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로 언제까지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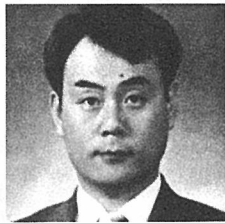
저는 새해를 맞으면서 몇 가지 다짐을 해 봅니다. 금년에는 교수님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복지위원들이 나를

대로 많은 노력은 했지만 학교 사정 등으로 교수님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표는 교수협의회 학칙기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 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이 국공립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현재 교수협의회 학칙으로 인정되어 있는 사립대학은 18개교입니다. 다. 서울 소재 대학도 5개교입니다. 작년 경북대학은 국립대학으로서 최초로 교수협의회가 대학의 최고결정기구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수협의회는 작년 여름 교수협의회에서 교수님들의 참여를 통해 교원정규위원회에 교수협의회가 일부 위임을 추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대학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위해서 교수협의회 학칙기구조는 최후의 조건입니다. 교수님들을 비롯한 학내 구상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장 직무대행 심재경)

사할려는 외대가족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며, 경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우리 외대는 대학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교육, 직원, 학생 등 3주체들에게 의한 대학운영의 민주적 기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 해에는 퇴출된 비리재단의 복

귀를 용이하게 하는 축소조정을 포함하는 사립 학교로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해내 모든 민주 주체들과 공동투쟁분부를 결성하고 교육,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교육개혁법 제정투쟁을 가결까지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학은 민주적인 관선이사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해내의 개혁을 더욱 더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해내의 새해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외대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대학발전의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이 더욱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 일에 적극 동참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학교 당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것을 확실히 밝혀 둡니다.

올해는 근로조건 제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대학당국은

경영컨설팅을 통한 교육,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대학 현실에 바탕을 둔 교육, 행정의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용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방의 회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외대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투쟁뿐만 아니라 대학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올 해에 치러질 총선에서 개혁파와 진보적인 민주인사를 지지하여 IMF이후 우리 사회에 더욱 심화될 부패부 반악의 양극화 현상을 타파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 청년학생들이 동참할 것을 믿으며, 아울러 총선을 통한 선거개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를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외대가족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서울배움터 단과대학학생회 대표자협의회장 이승주(사학 · 정치외교 3))

를 확인하려고 기다리는 삼기면 여러분의 얼굴과 눈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토익 시험 신청장에서, 학교에서 보았던 여러분의 얼굴을 세 얼굴에서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에서 많은 새 세기는 우리에게 그 빛나는 미래를 보여줄지는 못하는 것이군요.

저희 단과대학 학생회 대표자 협의회의에서는 이러한 우리 세대의 문제에서 여러분과 함께 많은 미래에 그림을 그려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번째가 대학에서의 민주주의의 구현과 삶과 교육의 문제로서 등록금 문제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민주주의라는 화두는 시대적으로 의미를 실감할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에 대학생을 파멸해 왔던 민주주의라는 화두는 현재 어느 누구에게도 그러한 행동을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 문제로서, 우리 삶의 권리의 문제로써 민주주의는 유익합니다.

등록금 고지서의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

있고, 본관 산속에 대한 학생들의 이견이 총장님의 대화 속에서 묵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의 주체가 운영에 있어서 90% 이상이 되는 모든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들이 사립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에서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동맹이 입학하는 어떤 휴학을 하거나 권리를 가리만 하는 우리의 현실은 등록금의 문제와 몇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교육을 균등하게 받는 권리의 문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방학이 이제 봄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 배움터 두 우리가 지향했던 화두 '민주' / '인' / '성' / '의'를 갖기전에 우리 새대들과 함께 뿌려내려 봅시다.

그리 밝지 못한 21세기 첫 해를 우리의 교육과 삶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로, 희망을 여는 밝은 세상을 위한 목소리로 받아들이는 우리 외대 가족 여러분입니다. 남은 방학 잘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동인배움터총학생회장 이승현(인문 · 철학 4))

2000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천년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마음은 모두 특별할 것입니다.

이해와 오해없는 단지 하루의 차이지만 새 해 곳곳에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화려한 행사가 벌어지고 모두가 새천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새천년이 희망으로만, 또 핏빛으로만 그려질 수 있을까? 전국 곳곳에서 제2, 제3의 노근리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고 언론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임시 일을 직까지 삼갈지 않는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교를 떠나서는 학생들과 얼굴을 내지 못한다. 깊은 주름의 우리 부모님들, 서민들의, 만물들의 삶은 여전히 웅장합니다.

IMF 이후 반공공이 무려 천만명도 늘었고 부모님의 허리에는 날로 커지는 지름 선상에 서 점차 교육을 필요로 하는 정부와 사립대학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시키며 등록금인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인상률이 15%를 웃도는 지금의 현실은 비단 현실이었던 것처럼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쟁 여태로까지도 조류들 타고 추진하는 정부

대학에는 어느새 생명이랄 할 진보성도, 한기도 찾기 어려운 취업학원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가쁜 신자유주의 물결로 농민, 경제, 정보통신, 대학마저도 경쟁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체해야 하는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되는 새천년은 변화의 시기입니다. 또한 학교와 인간의 시대여야 합니다.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진정한 인권을 위하는 시대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육이 아닌 진정한 인본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진정한 세계화, 국제화가 실현되는 것이 외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학을 중심으로 외대의 변화의 주제로 인간사회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청년학생이 바로 우리 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천년의 희망은 바로 우리 청년 학생입니다.

3기 전국대학노조 위원장에 장건 당선



3기 전국대학노조 총조합을 이끌어 갈 위원장직에 우리학교 장건 노조조합 위원장이 당선됐다.

장건은 지난해 12월 21일(화) 전국대학노조 임원선거에 단일후보로 출마, 투표율 70.9%를 기록한 가운데 85% 찬성표를 조율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이에 따라 이제 각 구성원 3기 전국대학노조의 단일노조와 대내 이해와 조적재능비를 최대의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우리학교 노조자부정직 임기를 6개월로 늘려 두고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직

을 맡게 된 장건은 "외대에서 해야 할 역할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학노조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내외 노조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외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대학노조위원장으로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집 노조수석위원장이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역력

- 우리학교 노동조합 4대, 7대, 8대 위원장 역임
- 대학노동조합연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임, 3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당선

직원 승진임용 시행세칙 개정

지난 해 12월 8일(수)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직원 승진임용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해 60점의 근무성적을 산출한 것을 근거로 승진상 60점 중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점수 10점을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근무성적평가 중 기타 항목 평가기준에 교육훈련참가여부가

항목으로 추가됐으며, 4등급으로 나뉘는 종합평점에 등급간격을 확대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은정씨는 "있다 고무의미하다. 하지만 엄격한 평가를 위해서는 또 안이유와 평가내용보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학칙과 이규공 과장이 명예퇴직사를 통해 명예퇴직자로 결정됐다.

1기 영어체캠프열려

27는 2월 16일(수)까지 모집

1기 영어체캠프집(HUFS English Camp)가 지난 10일(월)에 시작해 오는 16일(수)까지 5주간 용인배움터 외국어종합연구센터에서 진행된다. 대외(원)생 및 일반인 100명이 참가하고 있는 영어체캠프는 국내에서 해외언어의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감시진 모두를 우리학교 전문영어강사로 구성하였고, 영어듣기, 읽기, 쓰기, 대화하기 외에도 참가자들의 영어실력 향상점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영어체캠프를 지도·관장하고 있는 민병희(외국학종합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교수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7는 오는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문의: 0335-330-4822, 4807~8, 4855

2월8일(화)부터 수강신청 시작

2000년 1학기 수강신청이 2월 8일(화)부터 17일(목)까지 페르소나, 학내별로 진행된다. 이번 수강신청은 작년 1학기 수강신청과정에 생じた 과목과 분과를 처리하기 위해 발파중 2년의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사비의 용량을 기웠다. 수강신청 기간은 아래방영일표 참고

'새천년 맞이 외대인의 밤' 행사 열려

새천년 맞이 외대인의 밤 행사가 지난해 12월 14일(화) 힐튼호텔백관산에서 열렸다.

외대인의 화합과 발전기금마련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외대동문생 비롯해 학부모, 재학생, 동지까지 참가했다.

1부 순서로 총장 인사와 이사의 환영사, 동문회장의 격려사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2부에서는 노어, 태국어, 이탈리아어와 학생들의 민속노래, 춤 공연

BK21 선정관련 국제관 증축 공사진행

국제관 증축공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공사는 BK21 일반연구단원의 1차년도 사업계획으로 기존의 통역번역 연구소가 BK21 사업과 관련해 통역번역 연구소로 확대 개편되면서 필요한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해 시작됐다. 증축되는 국제관 6층에는 연구실 5개

와 자료실, 세미나 및 학술회의실 등을 갖추게 되며 국제관 3층에 위치한 통역번역연구소가 통역번역연구센터로 확대 개편되고 고교적인 도서관을 해아할 시기가"라고 밝혔다.

2000년도 신년하례식 겸 시무식 열려

2000년도 신년하례식 겸 시무식 3일(월)에 예결호에서 교직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장의 신년사와 10, 20, 30년 장기 근무 교직원포상이 진행됐다. 조국철 총장은 "새천년, 맞아 새로운

가치관으로 외대 도약 위해 매진합시다"라는 제목의 신년사를 통해 "외형적 성장의 든든한 기반 위에서 세계와의 거대한 만남을 타고 교직원 도약을 해아할 시기이다"라고 밝혔다.

서울

단대협시무식 및 등투선봉대 발대식

단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단대협) 시무식과 등록금등록부담선봉대 발대식이 13일(목) 총학생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무식은 각 단과와 과의 회장, 집행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사와 단대협 대표자의 결의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시무식에 이어 열린 선봉대 발대식은 각 단위를 선봉대 대표들의 결의발언과

선봉대대로 정해진 약속을 지킨다"를 참가자들이 배워보는 리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단대협회장 이승우(사)와 정지희(과) 3인은 정거농성해제와 관련해 "정거농성이상으로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선봉대이다"라 "앞으로 등록금등록부담을 선봉대 중심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예학과 열려 강연, 전수활동 진행

문예학과협의회는 지난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문예학과를 개설했다. 우리학교 노래교, 풍물교, 율동교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오장에는 강연과 토론, 오후에는 문예제발 활동으로 진행됐다. 강연으로는 13일(수)에는 바보 대교의 작가 홍지석(사)이 연설했고, 14, 15일(금)에는 각각 외대신문사

와 대학문화비 1대 문예학과협의회장 이은희(사)와 신대교 교장이 연설했다. 이번 강연과 함께 문예제발의 회의와 장해인(동양, 일어 4)은 "외대 문예제발의 정체를 함께 고민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였다"고 밝혔다.

중어과 겨울농활 떠나

중어과 학생회는 오는 18(수)부터 21(금)3일간까지 전북 순창 읍지마을로 겨울농활을 간다. 작년에 이어 무분별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농촌지역을 간접해 일보되는 마을전지와 토가사상 등 마을주민들과 유대감을 쌓는 행사 위주로 활동한다.

또한 중어과 집행부의 간부수련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겨울농활을 준비한 중어과 학생회와 집행부(2)군은 "평소와 비교 있었던 분들을 찾아보는 기분이다"라 "봄, 여름농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양배움터 새터 진행

서울-새내기 새로배움터(새터)가 2월 21일(화)부터 23일(수)까지 낙산 3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총학생회선거가 무효처리된 이후 지난해 사법재판이었던 박영준(한)교 3교에서 새터준비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확대간부수련회도 오는 26(수)부터 28일(금)까지 낙산에서 열린다.

중앙-이재현의 시대! 공동체의 아름다움! 그대! 새내기 새 천년의 희망이다! 라는 주제로 진행될 새터 새 배움터(새터)가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3일간 개관된다(장소 미정) 방중 새터준비단이 마련한 새터 학살사건은 크게 새 배움터와 생각이 있는 새 배움터, 문화학교, 유망인사 초청강연 그

목욕실이 일어난 선전 시중양곡 연비 새터준비에는 새터 조장 학교(한) 스물과 파에서 새터 주제를 세워 2월 한달 동안 함께 준비! 새 배움터(새터)가 3월 1일(수)부터 3월 31일(수)까지 3일간 열릴 확대간부수련회 때 는 의의 예정이다.



"꼭! 합격하길"

"우리학교 정시모집이 서울배움터 대학원 강당(서울배움터 제 13구)과 학생상담(용인배움터 제 13구)에서 지난 26일(화)부터 30일(목)까지 3일동안 진행됐다. 마감결과, 용인배움터는 6.34대1, 서울배움터는 5.54대1로 총정원률 6.34대1을 보였다. 이는 작년부터 4.6%이상 상승한 것이다. 사진부정

용인

학운위, 등투 보고와 새터준비논의 등 진행

2000년 각 단위 학생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등투, 등결원 고지서 발송 △새터단의 수위사업과 학과교무부위위 위한 재정의 확보방안 마련 △이월적립금, 등록금 사용 세부사항 등에 관한 정보공개 신청에 정해하고 성실한 답변 △등록금 인상 근거를 알발적으로 통보하는 등록금 조정위원회 정전면의 제구수 등 요구 재안 및 확정 등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또 방학기간동안 학생들에게 소식지를 발송하고 전화방문을 활성화 해 등록금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단대별로 진행될 이번 새터배움터는 장소에 대한 합의와 인제 반 주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했으며 확대간부수련회 또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생활기대대학 늘어나

2000년도에는 대학생활활동(생활)에 가입한 대학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용인배움터 생활에서 다른 대학의 생활 실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생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법칙근거가 미약해 주저하던 대학들이 '생활기대 생활'을 통해 적극 관심 비활함을 보이고 있다고 용인배움터 생활회를 밝혔다. 한편 오는 3월과 4월 중에 참람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대, 고려대 등 5개 학교가 있다.

공활 27일까지 진행

방학이 시작되면서부터 진행한 공활 활동이 오는 27일(목)까지 마무리 예정이다. "노동자의 삶을 배우자"는 취지로 진행된 공활활동은 작년 2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것과는 달리 300명의 학생들이 이 소규모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는 경기도 용인시 여정 가두진 근처 판교공장에서 하루 평균 10시간의 일을 하며, 자제시간에는 하루 활동을 평가하는 자리를 갖기도 한다.

서울배움터

구분	학 생			대 학 원 생	
	아침	점심A	저녁	백반	일몰요리
월 (17일)	소고기버섯갈비탕 (W1,500)	돈육잡채(왕)밥 (W1,400)	소고기잡채(왕) (W2,300)	소고기잡채(왕) (W2,300)	소고기잡채(왕) (W2,700)
화 (18일)	오무라이스 (W1,500)	오징어볶음식채 (W1,400)	시금치잡채(왕) (W2,300)	소고기잡채(왕) (W2,300)	소고기잡채(왕) (W2,700)
수 (19일)	상추부추고기밥 (W1,300)	하이라이스 (W1,300)	콩나물국밥(왕) (W2,300)	하이라이스 (W2,300)	하이라이스 (W3,000)
목 (20일)	콩나물국밥 (W1,400)	당우탕밥 (W1,500)	견과류잡채(왕) (W2,300)	견과류잡채(왕) (W2,300)	견과류잡채(왕) (W2,700)
금 (21일)	포도커릴레 (W1,600)	닭볶음 (W1,400)	잡채(왕)식채 (W2,300)	잡채(왕) (W2,300)	두부 (W2,000)

용인배움터

구분	승차장식당		교직원식당
요일	한식	분식	중식
월 (17일)	당우탕밥 (W1,400)	하이라이스 (W1,400)	시금치·오징어잡채 (W1,800)
화 (18일)	소고기잡채 (W1,800)	면도구이 (W1,400)	배추잡채·오징어·고추장국 (W1,800)
수 (19일)	소고기 두가지채 (W1,800)	견과류밥 (W1,400)	견과류·포도배 (W1,800)
목 (20일)	순두부고추장찌개 (W1,400)	하이라이스 (W1,400)	면도 감채 (W1,400)
금 (21일)	부추치 감채 (W1,400)	면도구이 (W1,400)	견과류·고추장밥 (W1,800)

이 사람

조사수배자 농성 해제를 경험한 박대현(사학·영어학)을 만나



"사회모순을 몸으로 경험한 수배기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번 수배해제는 이적단이라고 규정한 과거 한총련의 간부가 구속되지 않고 나왔다는 사실에서 과거 학생운동장의 정당성을 한 정권으로부터 인정 받는 것이 되었다" 박대현(사학·영어 90)은 500여명의 농성단원의 성과를 담당해 말했다. 이전의 노동자들의 조제사 농성 길에야 100여일 정도였는데, 500여명이나 농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중들 속에서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대현은 90년도 김영삼 정권시절 한총련 중앙 간부로 활동하다가 수배를 당했고, 작년 7월부터 조제사 수배자 농성단에 합류하였다. 지난해 20일까지 농성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청 청 외대의 수배해제 건의를 받아들여 21

일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한마디로 참살 같은 감옥이었다"와 4개월 간의 조제사 농성단 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박대현의 얼굴이 굳어진다. 500명이 넘는 한마디를 벌인 조제사 농성단은 한마디에서 한 한 잘못된 사실을 거부한 상태였다. 한 정권에 대한 불신이 박대현의 목소리를 타고 나왔다. "하지만 양심이나 양심의 고리를 끊지 못했기에 대해서 는 책임감을 느낀다" 박대현은 정권 교체 후 이전 정권의 정치수배를 150여일 이상 방치해 두었던 이라있는 김대중 정권의 탄압이 부당한것이라, 독재정권을 만연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초에 농성 목포로 새천년 국가보안법 폐지나 한총련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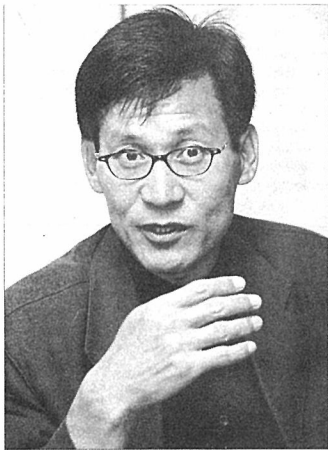
적 규장칙회의의 폭력한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비록 한겨레에 나같은 사람은 숨어다니고, 비리를 저지른 김현철 같은 사람은 살아서 다뤄지지 않고 고소소를 나오는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잘못된 사람과 잘한 사람의 결과와 더불어 사회의 모순을 몸으로 경험한 박대현은 자신의 수배기간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수배기간이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때문이라고 한다. 수배기간 중에 박대현은서 전선 일용직 생활을 하며, 어떻게 생활한 박대현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자신의 운동에 대한신념, 비록, 몸과 마음의 불편도 타라도 굳은 신념이 자신을 버티게

해준 다짐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박대현은 새내기들에게 "운동을 하든, 하지 않든 운동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입장과 시각을 가지고 보았으면 좋겠다"며 기존의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적어도 대학생이라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민족과 우리라는 두마리를 함께 생각하는 넓은 시각과 고민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박대현은 또,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갖게 됐다고는 기회를 많이 접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대현 기자 marquess@hanmail.net

조기 간일정표	시도	후인
1월	· 새내기 새로배움터 낙산제비리조트 - 1월 26일(수)~28일(금)	· 수강신청일정 2월 14일(월)~12학년 15일(화)~23학년 16일(수)~34학년 17일(목)~4학년 · 학위수취식 - 2월 25일(금)
2월	· 공강활동 - 1월 27일(목)까지 · 확대간부수련회 - 1월 28일(금) ~ 1월 30일(일)	· 새내기새로배움터 - 2월 28일(수) ~ 3월 1일(수) · 수강신청일정 2월 8일(화)~12학년 9일(수)~23학년 10일(목)~34학년 11일(금)~4학년



▲ 농민의 분노
“우리 국민의 밥줄인 농민들이 현재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99년 2차 민중대회에 서울 역에 모인 수천여명의 사람들은 흥과 함께 평상 살아가는 밭고랑 같은 깊은 주름이 있는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다. ‘WTO 반대, 농가부채 해탈’을 외치는 농민들에게 김대중정부는 고령의 농민들을 폭력탄압하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 단지 생존권과 나라의 먹거리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는지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었는지도 알았다.



▲ 우리 문화 저편이 안성기씨
“단순한 상품 이상의 가치를 지닌 문화가 타국에 의해 잠식당한다면 그것은 곧 자국 문화의 몰락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를 매우 높은 것을 어떻게 영화를 할지와 상품화 시킨 미국에 의해 돌아오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스크린쿼터 사수 열혈인 비상대책위원 공동 집행위원장 안성기씨의 말이다. 스크린쿼터를 비롯해 공기업과 몇몇 재벌의 매각을 막으면서 미국에게 시장하고 있는 소비투자협정은 “일리움 쏘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외대담계
작년 서울비엔날레 ‘세계문화대축제’가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세계영화제, 세계민속예술제 본 행사, 월드 빌리지, 시민학생연이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세계민속예술제에서 각 과에서 준비한 각 나라의 민속춤과 노래, 회상을 선보였다. 외국 아대학담계 각 나라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었다.



▲ 사안이 쏘파바 아카데미
과외아카데미를 할 수도 있는데 자신들을 위해 고생하는 선생님들에게 말할 수 없이 고맙다고 얘기하는 학생들. 학생들과 마음을 교감할 수 있고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곳. ‘아학’ ‘후회할 때 시의 때도 늦지 않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재가 직접 해보시면 맞다. 라구요. 아학에 와서 도전해보는 것 후회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한경미씨와 김남희씨. 김씨는 김창조씨를 소개하면서 지리에 넣고 다니며 항상 자랑하고 다니고 있다고 한다.



▲ 비리제단 막기
작년 대학가에서는 사립학교법 반대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우리 학교도 교육관계법 민주적 재검토와 외대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가 우리저 교수·학생·직원 학원 3주체가 서울비엔날레 노란국기에 교육관계법 개정 추진과 교육 개혁을 위한 전 외대인 결의대회 등을 열고 교육관계법 재검토와 김대중교육부 장관 등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우리학교 교수협의회 부의장인 이은영(법대)교수는 “민주적 교육개혁을 주도해 대학이 민주적인 모습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99년은 비리제단을 물리친 해년의 성과가 재단 한 줄어가는 정책을 생산하는 정태에 의해 무너짐을 막기 위해 외대인들이 다시 힘을 모으는 한 해였다.

▼ 일가리를 잃은 설움.
“사진까지 양반 저 좀 찍어주세요 내가 오늘 일가리를 잃었는데 도저히 아들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거리로 나왔소” 어느 날 갑자기 일가리를 잃어 방황하는 우리 아버지의 자화상이다.



99 외대학보가 만난 사람들

제작·사진부

▶ 세백공기를 마시는 엄종영(46)씨
외대주변을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아저씨. 학교교문을 여는 수위아저씨, 학생식당의 아줌마를 준비하는 사람들, 학생식당에 두부를 배달하는 아저씨, 세백같이 도서관을 찾는 외대생... 외대 주위의 세백공기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유난히 간절한 미소를 가지고 신명나게 일했던 환경미화원 아저씨. 그는 자신이 노력한 댓가 이상은 바라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해나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 한때 서민 역사의 눈물
정신대 할머니들이 자원봉사자들과 모여 사는 나눔의 집. 중국에서 홀로 지내다 얼마 전아 고국에 돌아온 문명길 할머니. 자원봉사자가 불러주는 한국전통음악에 고요, 어머니 생각이 나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셨다. 조국의 부유침도 없는 일본정부, 일본에게 어떤 문제해결도 촉구하지 않는 우리 정부. 문명길 할머니의 말 뜻하는 한의 세월을 갈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 김지현(인문·영학)군이 휴학한 이유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하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한다. “실업자가 되느니 차라리 학생신분으로 실력을 쌓으면서 취업준비하는게. 만 원하고 집에 돈도 더 보아서 휴학했어요”라고 말하는 김군. 학교 도서관에 기본급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자신의 전공 공부보다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공부와 재벌, 인문에서는 오직 실력만이 대안이다. “후진” “현실에 맞게 눈을 낮춰라” 등의 무책임한 얘기만 할 뿐이다.



▲ 투쟁선이 상징이다
당신이 하루 아침에 열(신)나 다녔던 직장을 잃게 된다면?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서울지하철 노조는 지도부 전원 구속 각오로 지하철 노조 역사상 가장 높은 조직력을 과시하며 한강이고 관철된 투쟁을 벌였다. 그들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 한다는 정부에 반대하여 평등노동에서 투쟁한 천막농성을 하기도 했다.



▲ 우리는 통일 꽃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제 10차 범민족대회가 서울·평양·도쿄에서 공동으로 치러졌다. 남북해의 3차 연례 구성의원 범민련을 중심으로 지난 해 8월 13일(금)부터 3박 4일간 전국연합, 민주노동, 진중, 한총련, 빈민, 월계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 1만 5000여명이 모여 통일축제를 가졌다. 통일로노래민요대항에서 보았던 인양지와 함께 한 아이들의 ‘우리는 통일꽃’, 금강산 노래와 공연 ‘통일은 꼭 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통일의 날을 기대해 본다.



▲ 대학생들의 진정한 축제인 장
작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총학생이 전국에서 알려진 400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평화적인 출범식을 진행하기 위해 정권의 어떠한 행동에도 절제하게 비폭력으로 대응하기로 한 한총련 학생들. 2박 3일 동안 한강대 노천극장에서 노래부르고 춤추며 함께 어우러졌다. “대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즐겁고 멋진 축제는 다시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세이비의 양지원 한총련이 이적단체, 폭력단체가 아니냐는 7기 한총련총학생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집권 2년 ..., 김대중을 말한다

96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은 처음으로 이루어진 정권교체로써 한 정권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집권 2년이 지난 지금 김대중 정부의 중간 평가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98, 99년을 통해 '국민의 정부'를 돌아보며 그 공약 사항을 짚어보고 평가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경제

실업자 800만 시대, 노숙자 6000명, 임시직 4백42만2천명,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언론에서는 "연일 경제가 회복된다", "경상수지가 흑자다", "무더기 사와 S&P에서 우리 나라의 신용 등급을 올렸다" 하며 경제가 살아날 것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IMF이후 심각하게 늘어난 노숙자의 수와 실업률만 보아도 우리의 현실을 알 수 있다. 서울대에서는 나은 통계에 따르면 1996년 정규직이 7백44만2천명, 임시직이 3백45만1천5백명이었던 경제구조는 99년 24분기 정규직이 1백98만8천명, 임시직이 4백42만2천명으로 바뀌어 불안정직이 적고 있고 조조조조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로 몰려나온 실업자의 수는 8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것으로도 모자라 외자유치에 필요하다는 나라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한국전력과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에 매각하려 하고 있다. 98년 '포항제철' 및 한국통신 민영화 방향을 통해 추진되던 공기업 구조조정은 그해 9월이 되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해체파괴는 나라의 기반 산업을 해로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해체파괴가 된다면 우리 나라의 산업은 무너져 버린다.

◆국가보안법과 통일

국가보안법은 근본적인 탄생부터가 분단이 되면서 탄생한 법이고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통일은 있을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가 국가보안법의 바람을 저지르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집권 2년이 지난 지금은 불교지

통 일부를 개정 운운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처도 '남북대처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점진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에 대해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인권침해 지적항을 포함한 남북관계에 따라 변화되는 보안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자민련이 출신전 보안법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에 따라 연내 개정안 제출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역시 역대 정부가 그랬듯 북으로부터의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민중 탄압도구로 그리고 조국통일국민연맹(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진보적 통일세력에 대한 탄압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 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자를 몰락시켜 소위 '범남연원'의 사전으로 기소된 김영호씨 등 4명이 무죄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건이 조작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줌과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 2년을 보면 집권전반 김영삼 정부보다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4.5배나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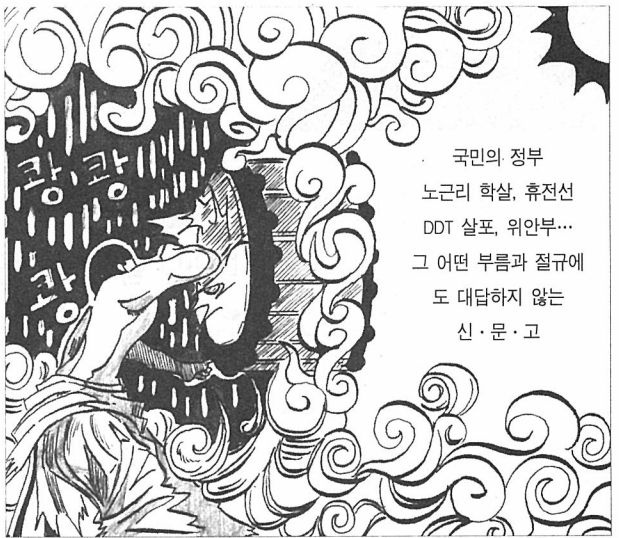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현재 남·북간의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휴전선 부근에 고엽제를 살포하고 한 해에도 수 십만 명의 병자를 저지르는 주한미군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용산 미8군 기지를 비롯하여 전 국에 141개의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4만명이 넘는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다.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땅은 1억여에 달하며 이 땅을 50년이 넘게 돈 한푼 내지 않고 아무런 거래없이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주한미군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주한미군에 분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집권전보다 3천 6백만 달러나 많은 3억 8천 9백만 달러로 높이 책정했다. 이와 반대로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주둔비를 받고 있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과 공식적인 사과,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얼마전 파주에서 있었던 폭발 사건도 민간차원에서의 움직임인 것을 본 정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를 우리 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폐문제를 김대중 정부는 등한시하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민족통일 자유기독교인 김성호씨는 민족통일 새천년 특집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방향'이라는 글에서 '지난 2년간 김대중의 정치를 보았다. 김대중은 개혁을 부르짖으며 국민들에게 목적인 약속을 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약속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요즘 정국은 오는 4월 대선 열기로 뜨겁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나선운동으로 시민의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도자를 호소하고 있다. 진정한 지도자는 민중의 앞에 귀를 기울이며 공약을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일 것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어떠한 범죄에도 진상규명 등의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한해에 수십만명의 주한미군 범죄가 벌어지는 주한미군 천국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휴전선 부근에 고엽제를 살포하고 한해에 수십만명의 병자를 저지르는 주한미군. 이러한 주한미군 주둔비가 김영삼 정부 시절보다 3천 6백만 달러가 더 많은 3억 8천 9백만 달러로 높이 책정됐다. 또한 주한미군 141개의 기지가 차지하는 1억여에 달하는 땅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양심수 4.5배 증가 인권 대통령?



자신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인 김대중 대통령. 대선 당시 내걸었던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철폐한다'라는 공약을 지키지 않고 개정을 운운하니 개정의 의지도 확실히 보이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김영삼 정부보다 4.5배 많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이제는 공기업까지... 나라 산업 무너진다.



IMF의 요구로 기업에 구조조정을 이행하고 실업자 800만명을 만들었으면서 이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같은 공기업도 해체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공기업은 나라의 기반 산업이다. 때문에 공기업에 해체파괴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무너질 것이다.

실업자 800만명, 노숙자 6천명 경제가 되살아나나?



실업자 800만명, 노숙자 6000명 경제가 죽고 있다. 정권과 함께 IMF가 들어오면서 IMF의 요구대로 구조조정이 실시되었고 정부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우리나라는 사상최대 수치의 실업률과 자살률 그리고 노숙자를 기록하고 있다.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클라리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고 일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통일단체 탄압의 도구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권 또한 국가보안법을 진보적 통일운동 단체를 탄압하는 안배 사용하고 있다. 북으로 부러워하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국가보안법을 탄압의 도구로 쓰는 것이다. 이적세력이라는 골레를 쓴 한총련과 범민련에 대한 탄압과 불법적인 검문, 폭력행 등에서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의 친일인물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권은 어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해와 남해의 황금어장을 한강이합점점으로 넘겨주고 이로인해 독도마저도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김대중을 통해 일본의 '기무치'가 우리고유의 음식인 김치의 원조로 인정하고 세계표준으로 등록시켰다.

비리의 온상지 이제는 거짓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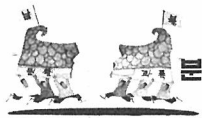


민중들의 삶은 파탄의 지경까지 이른 반면 기득권층의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비리를 만들고 있다. 지난 한해 사회를 비탄하게 했던 모욕비, 조공공사 파렴치도, 언론내 책문권, 뺑뺑이행기 등 많은 비리들이 타자나왔다. 또한 청문회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햇볕으로 달구어진 공안정국 북 무장합과의 서해 헌핀승부



북한정책으로 북한을 포용하겠다는 의의는 온데간데 없고 북쪽조각의 의혹을 사고있는 사해교전.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포용하겠다는 의의는 온데간데 없고 북쪽조각의 의혹을 사고있는 사해교전.



분단을 걷고 자주교류 시대로

99년 한해는 한반도에 민간차원의 남북사회문화교류의 붐이 터진 해였다. 이에 본보에서는 노동자축구대회, 대중가수 공연 등 활발했던 교류 현황과 역사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문화교류에 나서는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99년 남북 문화교류 진단

문화교류, 붓물터져라!



금년도 사회문화교류는 전년도에 비해 교류 대상과 방식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교류대상으로는 처음으로 대중음악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구, 농구 등 체육분야의 교류도 이루어졌으며, 월간 '별'지의 남북채널 등 언론교류도 확대되었고 교류지역으로 본다면 평양에서 대중가수들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제천경기의 경우도 혼성팀으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교류의 주체에서 민간주도가 확고화되어서 민간부문에서 사회단체가 참여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교류가 진전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몇가지 문제는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교류의 지역이 여전히 북한지역에 편중되어서 지역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선봉주체화도 동반 공연하는 교역의 발전은 이외에는 남한지역의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교류도 상시되지 못했다.

둘째, 사회문화교류에서도 공문문화가 핵심적인 과제에 부각되는 경향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경제력 있는 대기업이나 방송사들이 사회문화교류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경우 현재 정기적인 관공, 평화를 지향하는 관공, 남북관계 개선의 관공에서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기보다는 상공성과 선전성 추구 단점을 주는 사회문화교류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전년도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적지 않았으나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교류에 머무르고 있으며 따라서 전년도에 성과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는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북한영화 방영도

올해에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극장상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사회문화교류가 보다 활성화의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문화교류 및 방송개발조치가 유익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분업구조 확립 및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정부 및 민간간의 협의체 구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확립이 필요하다.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문화교류를 제재하고 있는 보편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다 다양한 북한문화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남북 접촉이나, 교류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료 축적을 위하여 이미 시행된 사회문화교류, 향후 추진될 사회문화교류에 관련된 협상과정 및 시행과정 등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사회문화교류 및 문화개방에 대한 성과 있는 분석 및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송개방에서 보여졌듯이 국내 보수집단이 이 재가하는 이념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명의 이념가이러므로 더 나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처럼 사회문화교류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우영

(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남북문화교류 역사 짚어보기

휴전선 철책 넘나든 문화예술의 향기

1. 남북공연예술 교류의 특성

남북간의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는 특히 공연을 교류는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공연을 교류는 남북 문화교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수 만큼 한 시기의 정점에 위치한다. 아마 그것은 공연예술이 지난 특정 때를 일컫는 것이다.

공연예술은 인간의 살아있는 육체를 매개로 전달되는 예술이다. 인간의 말과 행동, 인간의 움직임과 움직임, 인간의 목소리 등이 그대로 수용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남북간의 공연을 교류는 반드시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을 수반하게 된다. 즉이나 영상물, 그림 등 사물을 통한 오가는 방법으로는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람이 직접 오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분단상황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상대방의 예술 중 가장 체험하기 힘든 것이 공연예술이었다. 남한에서 북한의 예술과 사를 교류하기나 북쪽 사단상대로나 북한의 그림들을 감상하고 북한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나 북한의 공연물을 직접 보기는 매우 힘들다.

공연예술은 다수의 관중이 함께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남북간의 교류 현상은 어떤 식으로든 접촉할 만하기 힘든 남북한의 주민이 집단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되고 소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확대회와는 달리 그 관중은 비전문인으로서도 많이 늘어지게 된다.

분단 이래, 한반도 안에서 남북 공연단이 서로 오가면서 이루어진 공연, 즉 남한 공연단이 북한에서 공연하고 북한 공연단이 남한에서 공연하는 방식으로 상호교류가 이루어진 경우는 80년대와 90년대 단 두 번에 불과하다. 90년 리틀엔젤스의 북한공연도 북한 공연단의 남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다.

2. 89년 교류의 특성

89년의 공연은 '제1차 남북아시아문화교류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으로 남북 아산가 축약기라는 정치사회화나 교류에 수반된 것이었다. 따라서 공연이 분단 이래 최초로 수평의 남북한 공연단이 서로 오가는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남북아시아가 분단 이래 최초로 서로 교류를 오가는 것으로도 일관된 정치사회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매우 긴장한 상태였고 대중적 관심도 매우 높았다.

공연은 짧은 음악, 무용작품을 나열하여 구성한 것이었고 남북한 음악무용의 성과와 특성을 2시간 안에 요약하여 핵심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아산가 교류방문이라는 대중적 호소력이 큰 행사에 걸맞게 공연은 대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주요 예술문화가 애초부터 대중적인 북한의 공연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한에서 준비한 교류에도 대중음악과 대중무용, 재담 등을 주 내용으로 포함했었다.

북측 레퍼토리는, 음악 분야에서는 정치성이 강한 혁명가요 등은 배제하고 '양산보' '개무리 타령' 등 전통민요 혹은 '노들강변' '도리지 타령' 등 신민요, 혹은 '모란봉' 등의 중창곡과 가요를 독주, 개량 국악기인 장대남(장대리)을 길고 크게 개량한 악기) 독주곡이었다. 무용 분야에서는 가곡, 혁명 무용을 배제하고 '갈매기' '정글' 등 민속무용이나 '금강산' 같은 전설무용이었다.

이에 반해 남측 레퍼토리는 음악, 분야에서 가곡 '그리운 금강산' '사랑의 노래' 무용에 걸맞은 நட춤 등 이른바 고급 음악계의 작품이 적은 대신 대중가수가 부르는 가요 '눈을 잊은 두사람'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등 대중음악 작품들이 많이 배치되었으며 무용에서는 '정글' '정글' 등 민속무용을 바탕으로 한 한국무용 '꽃비' 등 한국무용이 압도적이었고 현대무용 '한대무용'을 행하여 그 포함되어 있었다.

이 두 공연에 대한 남북한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는 냉전적 분위기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산물인 한편, 서로의 예술과 취향, 예술전통을 이해하지 못해 오는 거부반응의 측면이 강했다.

89년의 공연을 교류는 이 지점에서 여지없이 출현했다. 북한의 남한의 작품을 현대적 미감을 갖지 못한 고리타분하고 조잡한 복고적인 작품, 혹은 미국의 참법과 강요로 만들어진 작품이라 평가했고 반면에 남한은 북한에 대해 국악기는 서양화되었고 춤동작에서도 러시아나 중국풍이 들어와 전통이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비난했다.

이 공연(적어도 남한에서는) 일반대중이 표를 구입해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언론을 통한 전문인들의 평가에 의존하여 공연의 성과와 결을 짐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문인들이나 언론인들의 평가가 하 나같이 비관 일변도여서 사실 공연을 통한 남북문화교류의 조성에는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 5월과 6월 당시 남북한 양측은 이런 교류를 본격화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3. 90년 통일전선동맹 의회와 성과

'90 송년 통일전선동맹 회의'는 90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음악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발민족통일음악제의 중심인물인 임영식이 매개로 성사된 것이다.

87년 6월장후기 때부터 제헌헌법이나 민주화가 진전되었

고 분단상황에 대한 반성과 통일운동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89년에 비해 화해적인 분위기가 강했는데 여기에는 매개되었던 임영식이 남측 양측에 서로 비난하지 말아달라는 신신장부를 한 것도 한몫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공연은 단순한 화해공연이 아닌 남북합동 공연이었으며 전통음악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89년 공연에 비해 대중적 호소력을 조금에 두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전문적인 관심에 바탕이 되어 있었다.

즉 레퍼토리가 양측의 대중들에게 호소력 있고 전통음악의 발전성을 충분히 보여 줄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선정해 상호비교하고자 하는 예술적 의도가 부각되었다.

따라서 남측의 레퍼토리는 국악의 아리, 거문고 산조, 민요, 판소리 제창 등 민속악, 박람회 작품의 '사랑'과 관련된 악곡을 위한 신도 등 현대국악이 고루 배치되었고 북측의 레퍼토리는 독창과 중창으로 편곡하고 개량 국악기를 보여줄 수 있는 민요와 일제시대 민요, 그리고 특이하게 김진명의 사설소리와 단소주로 채워졌다. 즉, 양측 모두 전통음악의 단순함과 한소를 볼 보여 줄 수 있는 레퍼토리로 채워졌다.

북한측은 이 공연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사실주의의 보도를 하였으며 사실주의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를 보였다.

남한측 반응도 매우 호의적이었다. 특히 한 대적 계층에 대해 고민하는 전통

전문인과 연구자들은 그들의 공연을 매우 관심있게 보고 분석했다.

89년의 평가에 비하자면 같은 경험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로 90년 남측의 평가는 북한 내의 예술적 흐름의 역사성을 고려한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화해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이 공연은 한반도 안에서는 계승되지 못했지만 이후 제3국에서는 교류 공연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

4. 그와 공연교류와 남의 문제들

이후 91년부터 93년 일본에서 5회의 남북한 합동공연이 있었다. 제독도 '한겨레의 울림' '한겨레의 울림' 등으로 유사하다. 남측에서 열병, 윤인숙 등이 주도적으로 참가하였고 북측으로는 조현숙, 제3국에서는 임영식 김홍재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밖에 사단단에서 MBC예대나 주위로 남한의 대중예술인들과 북한에서 온 관공단들이 참여한 '통일예술제'가 있다.

제 3국에서의 교류는 통일의 문제를 재외교포로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다는 점, 정치사회 이념의 굴레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 등에서 남북한 국내 공연에서는 이를 수 없는 성과와 가능성을 남겼다.

그러나 이들 공연은 남북 양측 정부와 국민들이 무관심한 공연이 대부분이어서 미친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겠다.

정성훈 기자



한국 외국어 대학교 출판부 신간 안내

실용 루마니아어 회문교수서 제1권 (1999. 9월, A5판, 13,000원)

이 책의 특징은 학습자들이 하여금 루마니아어를 보다 쉽게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1권에서 루마니아어의 철자법과 기초 회화 표현 등을 그에 상응하는 한글표기법(발음)과 함께 제시하였고, 본문에서 초급권과 고급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기호화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에서 루마니아어의 기본문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는 점 등이다.

고급 태국어 강독 회문교수서 제1권 (1999. 12월, B5판, 8,000원)

이 책은 태국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아름다운 사진과 현재 법의(法衣)의 불교, 절대적인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는 국왕과 왕실, 통일화대관관으로서의 민묘와 관공장제, 전통경준의식을 비롯한 각종의식, 태국의 사회와 경제 현황, 단편소설 등 태국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태국인의 생활과 풍습, 문화, 사회 및 경제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과 고급문장의 표현 방식을 통해 독해력을 향상시키도록 배려하였고 매 과(課)마다 중요한 어휘를 발해 뜻을 해두었으며 각과목 중 중요한 구문을 활용한 전문적인 문제를 수록하였다. 또한 권말에는 단어를 찾아보기 쉽도록 태, 한, 한 태 사전을 수록하였다. 이 고급태국어강독은 지금까지 출간되었던 그 어떤 태국어강독보다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인원서 강독 회문교수서 제1권 (1999. 8월, A5판, 8,000원)

이 교재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표절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단순히 단어를 익히거나 외국어를 습득하려는 방법을 지양하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현지 실생활과 관련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지역의 민단, 언어, 단편소설, 예술, 풍습, 문화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각 과마다 연습문제를 수록하였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심도있게 학습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동남아학 총서 라오스·캄보디아

양승윤·작상호교수의 지음 (1999. 8월, A5판, 9,000원)

총 9명의 필진이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동남아의 '미래국가'로 설정하여 이 두 나라의 국가개요·역사·경제·비교문화와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루 다루었다. 동남아 미래국가로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관한 여러 분야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이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남아학 총서 동남아의 종교와 국가

양승윤·김영애교수의 지음 (1999. 6월, A5판, 9,000원)

이 책은 다량성 속의 통일성을 지향하는 동남아의 종교문화를 폭 넓게 다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종교가 국가발전에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기술하려 한다. 태국의 불교(제1장)와 이슬람(제2장)을 필두로 하여,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정책과 조칙을 3장과 4장에서 다루고 있다. 제5장과 6장은 각각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의 이슬람국가를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으며, 7장에서 필리핀의 종교를 다루고 있다. 제8장과 9장은 동남아의 힌두교 개관과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힌두 문화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종문 재래에서는 베트남의 유교와 국가를 추가할 예정이다.

한국문학의 이해

김영애교수의 지음 (1999. 9월, A5판, 8,000원)

이 책은 한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교양 있는 지식인으로 시 미방히 갖추어야 할 우리문학의 소양습득을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한국문학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고전, 소설, 비평, 시, 이상대 분야에 집중하였다. 소설과 비평은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되었고, 고전은 방대한 사료를 집약했으며 시는 지향 시를 위주로 뽑았다. 이 책을 통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자각심이 고취되었으면 한다.

(세계문학총서 12) 사연(敎恩) (이관현)

서대그 헤타리 유림/ 김영애교수 옮김 (1999. 8월, A5판, 9,000원)

이집의 소설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서대그 헤타리의 문체적인 이 작품은 단편소설집으로 그의 문체문학적 사고와 성향을 특유한 감각의 언어로 묘사한 섬리소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주인공으로 그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현실을 도피하듯 위로 받낼 수 있다고 인식한 작가는 자신을 또다른 삶의 의미로 전이하고 있다. '사연', '언니', '남편을 잃은 여인', '살아 있는 사자'는 여석천이 겪는 사자의 모순과 부조화를 이슬람적인 배경으로 회화적 삶 수 조자라는 처절함과 애환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의 대타작이라 할 수 있는 '더러 어름'은 주인공인 그가 이를 수 없는 사람의 슬픔 때문에 생의 의욕을 잃고 고뇌하며 토로한 고통을 키우던 영무에게 의미있게 따라하는 지지공과 주인공의 죽음으로 조화롭게 삶의 아리타움을 안시하고 있다. 그의 소설들은 죽음과 삶으로 구성된 대항구로, 인생에서 온전대로 이어가는 여정으로 상징하고 있다.

(신동문문학총서 10) 독일어학

신형호교수 지음 (1999. 8월, B6, 9,000원)

이 책은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독일어 표현을 정리한 책이다. 발음표기는 가능한 한 원음에 가깝도록 표기했다. 기본회화과 대화, 그리고 활용예문 등을 구분, 제시하여 단계별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99년말엔 송년한마당에 암투병하고 있는 남편에게 보내는 시를 읽고 통일에 관한 노래를 연주하고 있는 양은천 시모님. 죽을 앞에서 통일을 얘기하는 남편을 보면 통일에 거룩한 믿음이 생긴다고 한다.

264에게

하늘 및 푸른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나

식탁 위에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수건은
폭풍치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 새 천년의 손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바라는 손님은 푸른 수외에
이름자 대신 '5003'이라는
숫자를 달고 흰 돛단배를 놓치고
망했습니다.
두들겨 맞고,
하늘 및 푸른바다가 아닌
안기부 지하 고문실,
붉은 오륙 불빛 아래
멍들고, 피 흘리고...
응어리진 창자를 끌어내고

구급실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서도 수갑을 차고
족쇄를 차고 자물쇠가 달린 쇠사슬로
침대에 묶여있습니다.
5011, 새 이름 하나 더 얻었습니다.
5094, 이런 숫자들은 비둘기
이름처럼 사랑스럽습니다.
새 대통령이 광복절날 달아준
이름은 '96'이었습니다.
새로 뽑힌 각하가 때아닌 변하는
김현철과 사기꾼들이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도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바라는 손님 대신에
우체부 아저씨가 도장을 달라며
큰소리로 문을 두드립니다.
법원 문서를 전달 할 때면 한층 더

의기양양 해지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벽속에 멈춰버린 시계를 보면서
소원을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기다리게 하소서.
누워있는 그 모습 그대로라도
기다리는 사람으로 땅 위에
남아있게 하소서.
길어진 손톱을 내려다보면서
바가지 굵은소리 상심한
자란 날들을 생각합니다.

답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것을 압니다.
예국자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통일은 온다는 것을 압니다.
발을 동동 굴러도, 내가 바라는
손님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김영무 선생님을 생각하며 양은천 시모님이 쓴 시

‘통일이지’로 버티는 암투병

50년 9월 21일 전북 남원 출생
69년 3월 1일 전북대 철학과 입학
73년 6월 10일 유신합법 철폐 투쟁으로 연행
73년 7월 10일 강제입영
78년 3월 연도근 의공고사
82년 4월 10일 민족통일사상연구소 설립
90년 9월 방미한 준비와 준비위원
91년 5월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위원장
94년 7월 5일 방미한 광주·전남 결성식
으로 구속
95년 11월 28일 방미한 남측본부 결성식
으로 구속
97년 방미한 남측본부 상임부위원
97년 7월 19일 이북 큰목피해구제 사업으로
구속
98년 8월 5일 방미한 남측 추진본부장
98년 8월 19일 방미한대회 관련 구속
99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
대제전·10차 방미한대회' 남측추진본
부장

90년대 들어서 4천이나 구속 당한 범
민련 남측본부 김영무 상임부위원장의 간
단한 약력이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을 위한 99통일대제전 10차 방미한대
회'를 상대하게 마친 직후 방미한 지도
부 52인에 대한 긴급체포영장이 발부했
다. 그 후에 젊은 청년학생들도 하기
힘든 찬박농성을 봄 속에 암세포를 갖
게 된 70살이 계속했다. 힘든 농성생활
을 하며 흑색종암이 온몸에 퍼지자 주
위의 간과 췌장도 곧바로 병으로 옮
겨졌다.

오다 한방병 302호. 선생님은 암투
병을 하느라 말할 힘은 물론 게이있는
힘조차 없었다. 선생님의 핏기 없는 얼굴
과 하얗게 타버린 입술을 보니 현재
선생님이 살아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큰
가를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현재
선생님은 간, 폐, 골반 등 온몸에 퍼진
종양이 휴수신경을 건드려 하반신 마비
와 비노장애했을 일으키고 있다. 암세포
로 육신이 죽어가고 있지만 눈빛만은
살아 빛나고 있었다.

서충원(서울지하철총회와 연합) 소속
학생들이 학교마다 붙여가면서 선생
님 간병을 하고 있다. 그들은 선생님의 다
리 감자를 느낄 수 있게끔 다리 주무
르는 일을 하며 병환자 대부분이 시
간을 보내고 있다. 시모님 97학번 전
대법관은 같은 법정을 쓰는 암환자들
은 신음소리를 내며 괴로워 하지만 선
생님은 신음소리 한 번 안 내고 정신적
으로 버티세요'라고 진언한다.

지금까지 버티는 것도 기적이라는 김창
무 선생님은 암세포와의 싸움 뿐 아니
라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
보위법을 비롯하여 반통일 세력까지도 싸
우고 있다.

남북교류치료의 선례를 남기고자
지난 해 11월 24일 북측심자의 중앙위
원회와 방미한 북측 본부에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입장에서, 인도주의적
전지'에서 북측 의료기관에 치료할 용
의가 있다며 김선생님 앞으로 초청장을
보내왔다. 그러나 12월 17일 통일부에
서 불허의 통지서를 보내왔다. 다시 북
측에서 초청 의사를 보내온 상태여서
재차 남북치료를 추진 중이다.
"사실 남측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단숨에 암을 잘 고치는 북측에서
한방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이 반드시 성
사되어 남북한의 치료교류의 좋은 선례
를 남겼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며
김선생님은 남북치료를 의지를 보였다.

선생님을 통한 통일운동의 역사

"우리 나라가 아닌데 왜 일제에 세계
를 내어 하느냐"며 세균병을 운동을 조
직적으로 발고고 있던 임시정부에 군자
금을 보내는 등 승은 민족주의자인 조
부님과 동학운동에 참여하신 종조부님
의 이야기를 귀가 이프도록 들었던 기
억이 김창무 선생님의 삶의 방향을 민
족통일과 통일운동에 맞추게 되었다고
한다.

"88년 민족자주평화와통일회(민자통)
가 창립되면서 통일분위기가 형성되고
88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결성대회에
서 8·15를 계기로 방미한대회를 결의
하고 8·15를 의미있게 보내야겠다는데
우리 남편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나
해외동포들도 같이 행사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미한대회를 8·15와 함께
하라고 북과 해외에 제안했습니다. 북
과 해외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1990년
역사적인 1차 방미한대회가 성사되고 그
성과로 민간급 통일운동 연합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탄생하게 되었
습니다"

통일신념에 대한 거룩한 믿음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통일 의
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에서
만 불렀듯 내 생애에는 거리가 멀었습
니다"라고 양은천 시모님은 김선생님과
만난 후 변화된 자신의 삶을 들려주었
다. "어린 제자들에게 근거 없는 반공
의식을 가르치지만 하는 심마를 도덕
선생님, 권위에 발붙여 더러운 것만을
찾아내고도 생존을 우선시 하는 비겁한
기자생활을 견디지 못했었지요. 결국은
선생님의 지압은 통일운동가가 아니라
'무자'으로 세상에 통했죠"라고 얘기
하며 젊은 초기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양은천 시모님.

인기부와 나와 누가 더 참견이 힘들
었는가를 물었습니다.
답변 대신 목마른을 행사하는 그에게
두부를 대워 먹였습니다.
두부를 먹으면 감옥에 다시 가지 않는
다는데, 청춘의 기운에 부문을 송두리
째 큰 집 욕망에서 보냈습니다.

다투었던 일 생각하면서 면회 가는 일
뒤로 미루었는데, 의욕이 해주는 일로
화풀이가 되었었는데...
감옥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마음에서
사라가까지의 거리였습니다.

-양은천 시모님의 '내려의 변형'의 일부 중-

이같은 어려움을 겪어선 선생님을 미워
해 본 적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
본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98년 10
월에 서울구치소에서 네 번째 수감생활
때 인권탄압을 받는 선생님을 보며 통
일신념에 대한 거룩한 믿음을 갖게됐다고
한다.

암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서충원지
소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선생
님을 조종술로 묶어서 구급차에 싣었
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호흡을 되
찾은 그의 팔뚝과 발목에는 링겔주사와
와사, 수갑,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때 시모님은 "집처럼 침대에 폭
여 있는 잔인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얻은 것 같은 편안한 얼굴로 누워 계셨
어요. 그때 저의 통일신념의 영혼을 보
았어요"라고 얘기했다. 현재 베를린에
서 유학하고 있는 큰딸과 고등학교 1학
년인 작은딸은 작년 10차 방미한대회도
함께 참석하며 아버지를 몹시 자랑스러
워하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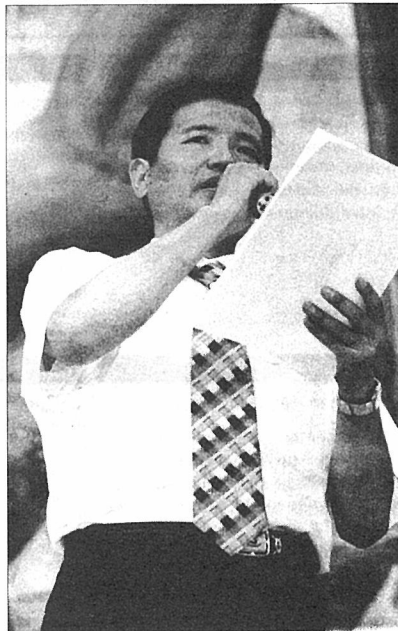
함께 맞이하고 싶은 통일의 그날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 있는 남편에게
부인 양은천씨는 "생체식을 해서 살아
있는 세포를 계속해서 만든것으로 해요.
살아있는 마지막 세포 하나까지 암세포
에게 투쟁하면 살아남실 거란 믿음이
굳건합니다. 한민련의 미래는 밝습니다.
투쟁하는 한충원, 방미한이 있으니 미
국을 비롯한 외세와 보수세력에 대한하
여 남력이 하나뿐이 남아 있지 않았
습니다. 김창무 선생님과 통일하는 그
날 함께 맞이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
다. 대역시절부터 맞서쳐 치다한 감옥
에서 생활하고, 온 몸이 퍼져있는 암세
포와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조국
통일을 얘기하는 김창무 선생님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통일의 절실함과 당
위심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다.

정요정 기자
hyodeng@hmail.net



간, 폐, 골반 등 온몸에 종양이 퍼져 휴수신경을 건드려 하반신마비와 비노장애했을 일으키고 있는 김영무 선생님. 북에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입장에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남북초청장을 두차례나 보내왔으나 정부에서 이를 막고 있다.



1. 암투병을 하느라 말할 힘, 게이있는 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다. 지금까지 버
틴 것도 기적이라 하는 선생님의 눈빛만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 10차 방미한대회에서 방미하고 있는 선생님.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통일운동의 역사, 범
민련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제작 : 사진부



비가 오는데 지하철을 타지 않겠습니다. 길아타는 일은 질색이네요. 이런 날 버스를 탔다가는 한강다리 위에서 오도기도 못하는 신세가 될 게 뻔한데 말입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는게 즐겁습니다. 버스의 창은 제 시선을 오직 밖으로만 고정시키기 때문이죠. 지하철에서 고된 다리품을 감수하더라도 맞은편 당선들의 삶을 엿보는 일은 꽤 쓸쓸한 재미가 있습니다. 가끔 끝자리가 짝근해지도록 당선들에게 치이기도 하지만 목덜미에 낫선 사람의 숨결을 느껴보는 일도 색다른 경험이죠. 그런 날, 당선들의 이야기가 쓰고 싶어집니다. 기위로 보라색 종이를 지르던 여자, 커피면을 안주삼아 종이컵 소주를 마시던 아저씨, 자리를 영보하는 학생을 위해 초콜렛을 가지고 다녔던 할머니, 우리 아빠, 엄마, 날리리 내용생, 돈돈한 후원자 종보오빠, 사월문학 여러 선배, 후배,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한 동기들... 당선들의 숨소리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런 상상한 글을 말합니다. 비가 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버스는 더더욱이나 인되겠네요.

.....문고리를 집은 기분이다.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신비한 농락을 가지지는 않았으니.

나는 분명 운이 좋았던게다. 그러나 이것이 기회라면 단단히 그려줘야하지. 그리고는 진정한 문학으로 열리기를 바라면서.

외대학보

12
2000년 1월 18일 754호

시 당선작 당선소감

주진형 (동학 · 체코 3)

민들레

어머니는 지금 폐경기를 치르느라 우울하다

창문을 열자 가시같은 햇볕이 얼굴 위로 박히고
나른한 아랫배의 고통이 찾아온다
아래엔 지천으로 깔린 노오란 한숨들
부서지듯 흩어진 흙씨의 날개가 활짝 퍼져
가만 손바닥 위에 내려앉는다

수십명의 아이들을 부푼 배로 움켜질 만큼
거대한 민들레의 자궁
풀린머리 날리는 산파가 슬땀 손을 잡으면
그녀는 피기도 전에 시들어버린 청춘의 시간을 휘청이며 흘려놓는다
얼마나 고된 산고를 치르었는지
하얗게 센 머리를 이고

후우~ 가라
흙씨 안에 화려했던 어미의 과거
무덤처럼 안고 날아가라!
갑작스레 자궁을 가진 고통에 엄습당한다
나는 어머니를 폐경기를 밀어낸 열꽃이었다



시부문-당선작

36회

외대문학상

시작

당신자의 당선소감을 실지 못하였습니다

서중오(동양·아랍어 4)

떠나고 싶다

이렇게 삶에 자신이 없을 땐 떠나고 싶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집은 어떻하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지갑에 움직일 돈 조금 가지고 그렇게

떠나가고 싶다

언제 한번 가보지 않았는데

언젠가 한번 외본 것 같은 그런 곳으로

다들 고향의 어르신 같은 곳

골목 어귀의 포장마차의 냄새가 정겨운 곳

그런 곳으로 가고 싶다

가서 마음까지 다 환하게 씻고

몸까지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시작해도 힘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내가 알아왔던 많은 사람들

다 버려두고 마음 편안하게 다시 사람들 만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떠났다가 돌아오고 싶다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 갖지 않고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매일 수백 번도 자신하면서

다시 시작해도 잘 할 수 있다고

언제라도 생은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도 지켜봐도 언제나 희망이라는 양분으로

죽도록 버터내는 곳이라고

그런 마음 들 때까지

잠시라도 떠나가고 싶다

시부문-가작



심사평

“시도 하나의 대화다”

신경림(시인)

책 좋은 작품이 눈에 띄지 않는다.

시란 이런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이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시도 남에게 자기 마음을 말하는 대화의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만 더 적은 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한다는, 이를테면 보다 경제적이고 보다 폭발적인 대화라는 점이 산문과 다를 뿐이다.

그래도 유모작 중에서 김정형, 주진형, 서중오의 작품들은 읽을 만 했다. 특히 '지하철의 노숙자'나 '담공 공위'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단면을 조감할 것이어서 읽힌다 읽힌다 있다. 한데 정리가 덜 된 느낌을 주는 점이 있다. 표현도 너무 거칠다.

주진형은 시를 다룰 때는 숨겨가려: 수준은 높은 것 같다. 아이들을 길러내고는 스스로 이렇게 어필하기가:

어머니를 만들때에 비유한 '민들레'는 감동도 있고 실감도 있다. 어머니의 허무함을 '아래에 지천으로 깔린 노오란 함승들/ 부서지듯 흩어지는 흙색의 날개'가 활짝 퍼져 같은 대목도 보인다.

'나는 교편'도 관망하면서도 선명한 삶의 시금stone도 진을 밟고있게 형상화한 가작이다. 인생에 대한 약간의 이유도 시의 맛을 살리는 데 한몫을 한다. 하지만

'나의 가벼운 이층향'에는 좀 모호한 대목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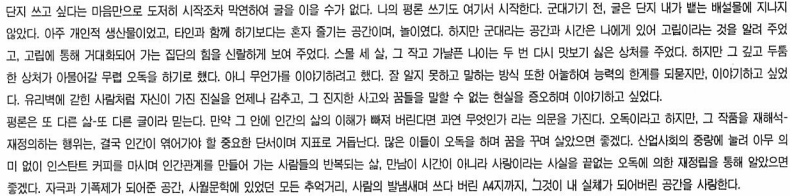
서중오의 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술술 쏟아놓은 느낌을 줄 만큼 편이하다. 이 시들을 읽고 이런 점도러면 나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점에서 서중오의 시의 역량이 다. 가련 시의 중요한 잠재인 비유나 상징 같은 것도 붙여 볼 수 없지만 그의 시적 모티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골목 어귀의 포장마차의 냄새가 정겨운'(떠나고 싶다) 이런 대목은 그런 곳으로 떠나고 싶은 것이 비단 그 뿐이 아님을 공감할 수 있다. '편지 나' '그게 바로 너다'도 읽기에 따라서는 너무 편이하지만 매매로운 시들만 읽다가 읽으니 신선한 느낌까지 준다.

간장이 모자라는 점을 큰 흠으로 '떠나고 싶다' 같은 시는 훨씬 더 짧은 행을 가지고도 많고 싶은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통속화하는 경향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시 가운데서 주진형의 '민들레'를 당선작으로 떠나고 싶다를 가작으로 뽑는다.



김정영 (자연 · 화학 4)

-장정일의 '길안에서 택시잡기' -〈지하 인간〉 시집 중에-

662 외대학보

프랑스 철학을 겁없이 공부한 적이 있다. 그 중에 특히 '리깅'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나의 기억 저 편을 떠나지 않는다.

육원으로 가득한 인간의 정신 세계는 수많은 상징계를 만들어낸다는 그의 말...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정신병과 늘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대학과 더불어 시적인 사고의 출발 지점에서부터 그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렇지만 '정신적인' 인간은 없는 것일까. 여기서 '정신적인' 말, 혹은 무언가 정 의 내리는 행위·실체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정 의는 인내로 버려야 할 수 있으며, 일시적 불안정체가 된다. 무언가를 정 의 내리는 행위의 역동성은 결국 인간을 통해 바친 고장된 사 물로 형성되게 하고, 기계에서 벗어나 수 없다는 집단의 논리의 합리화로 변형된다. 글은 이 사이에서 지극한다. 그리고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육원을 재정의하는 변형 과 공간으로 남는다. 이 영역에서 움직이며 이야기하는 나의 방식은 다소 미흡할 수밖에 없다. 아직 여러 개의 눈-사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발적인 관념과 실현 의 연속적 작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것은 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운 대학에서 가진 가장 큰 인간다움의 발견이며, 삶에 대한 애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켜보는 많 은 이들이 나의 힘이 되어준다. 아내나, 사할문대, 사할문대 이. 외대학보사, 친구 동료. 이 세 수 없는 인간은 미흡한 글을 흔쾌하면서도! 끝없이 글을 쓰게 엔트르피 를 증가시켜 준다. 그들에게 뜨거운 연정을 표현한다. 이 무거운 상 영시 글쓰기의 질책으로 감사하게 받아드린다.



수필당선작 당선소감

김정영 (자연·화학 4)

배설에 대한 小考

이 조그만 공간, 한 뼘이 될까? 눈대중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런 장식품이 없고, 인테 리아라는 말이 무뎠을 곳이다. 하지만 이 하얀 색과 넓은 녹색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삶에 있어 중요한 활력소이고, 살아 있는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사색의 생과 같다. 다소 답답하다 는 생각이 들겠지만, 오히려 너무나 넓어서 많 은 것들이 들어차 있는 이 밖의 세상보다는 안식을 준다. 편안함을 준다. 이러한 행복 배설을 해결함으로써 더욱더 안도의 마음에 삶을 써준다.

인간에서 있어서 본능적인 고통이 있다면, 배고픔과 배설일 것이다. 이 둘은 의식과 내성이 없이도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꾸준한 통증이다. 하지만 이 둘을 해결하고 나면 더 없는 행복감을 인간에게 안겨 준다. 아니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입과 항문을 가진 모든 동물들에 게 해당된다고 말해야겠다. 인간이나 동물은 체내에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므로 밖에서 부터 음식을 취해야 하며, 꾸준한 하지 못할 경우 죽음을 맞이한다. 아울러 이 먹는 행위는 '먹는 행위', 즉 배설을 유발한다. 마치 뉴턴의 물리적 법칙처럼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이 두 가지 현상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활동적인 모태라고 해야겠다. 수소를 끌고와 산소가 합쳐져 방귀를 거두러가는 이 유는 원자의 정상적인 생명 작용을 가해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배설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사람 들은 이 필수 불가결한 행위에 대해 금기시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본능을 가장 잘 드러내며 때문에, 혹은 배설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에서이든 우리의 지나친 편견이 배설에 대한 오독(誤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배설의 장소-화장실

어린 시절, 자라나가는 동물들이 있어 화장실 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고, 이 공간에 대한 지 식도 없었다. 그러나 처음 자라면서 화장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로 자리잡아 간다. 첫번째로 배설의 장소는 내가 여자냐 아니냐, 남자라는 사실을 각인 시켜 주는 자리로 머물 렀다. 이성(異性)이 함께 할 수 없는 곳으로 나뉘며, 비로소 이성(異性)은 새로운 사람의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늘 궁금한 여자 화장실 에 대한 은밀한 상상도 새로운 재미로 만들어 지고, 때로는 호기심은 행위도 남자들이나 사 이에서 하나인 욕기 있는 행동으로 인식되었 다. 이는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진 다. 성별의 차이로 인한 극박성의 감도가 다를 뿐이지 이성(異性)의 호기심은 서로가 공통 하 기 마련이고, 화장실은 이러한 구분의 출발 지점으로 큰 몫을 했다.

두 번째로, 화장실은 나의 기준이 되었다. 초 등학교 시절, 학교 화장실은 건물 안쪽에 있지 않았다. 항상 교실을 가진 건물 밖 뒤쪽으로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는 화장실에서 지극한 냄새, 다시 말해 배설물이 매탄가스를 동반하 는 화학적 작용으로 인한 고약한 냄새 때문이 었다. 이러한 후각적 불쾌함, 더 근본적으로 지극한 냄새의 화장실이 아니라 구멍만 있 는 형태를 하고 있는 구도 때문에 더욱더 심 각했다. 그러도 이 냄새는 장소를 학교 밖 에서는 심한 기압을 느끼고 사용해야 했다. 내가 살던 구로 25은 주로 서민들이 사는 지 역이라 집 구도 자체가 화장실이 없었으므로

유로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였다. 물론 부유층 은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였고, 남세 는 유로 공동 화장실의 타일이나 내기 소의 2층에 살던 사람들은 항상 깨끗한 화장실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이제 화장실은 호기심의 장소가 아니라 부의 축적을 말하는 기준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본 격적인 변화는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하 여 화장실의 청결함이 강조되면서부터 모든 장소가 수세식 화장실 설계가 되기 시작하였 다. 소위 물로 변을 볼 때 내어 정화조 쪽으로 오물을 집결시키는 방식으로 냄새 격리가 사 라지게 되었고, 화장실의 보편화로 유로 관연 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수세식 화장실은 구멍만 있는, 그 당시 말로 '배설식' 화장실로 불리던 구형 화장실을 몰아내게 되었다. 수 세식 화장실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 또한 편변 식 화장실은 조그맣고 앉는 것이 아니라, 의자 처럼 편안하게 있으면서 배설을 한다. 인간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러한 편안한 구조로 구제화되어 가는 변화는 밖에서만 있던 화장실을 집안으로 불러들이 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친숙하게 생활하도록 세면장까지 통합되었다. 아울러 인간을 화장 실에 오랫동안 있게끔 하였다. 때로는 여러 시 절의 '느브 스트로'를 읽으면서 변을 보기도 하고, 깊은 사색이 있을 때 화장기에 앉아 오 용히 명상에 잠기기도 한다. 근대 시대에 고 장들의 눈을 피해 편지를 쓰거나 초코렛을 먹 거나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생활의 습관이 되기도 했다. 나의 집이 생기고, 화장 실이 안방 옆에서 아무런 벌레도 없게 자리잡고 있을 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미소로 들 어간다. 그 안은 밖의 변화가 심해질수록 원초 적인 인간을 인간다움으로 돌아보게 하는 장 소로 만들어진다. 나 역시 이 안에서 삼삼하 여 즐거워한다.

배설의 대상-통

선사시대부터 화장실은 단순히 집을 이루는 요소를 떠나서 독립적인 자리를 구축해 왔다. 때로는 이 공간이 어떤 사람의 자위를 나타내 는 지표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안방이나 정원의 위치와 같은, 혹은 비슷한 대 접을 받지 못했다. 언제나 소와 받고 금기의 원인으로 늘 집안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온 것 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적 풍토는 한국이라 는 국지적인 개념에 앞서, 문화인류학적으로 통용되는 전체론적인 관습이다. 이러한 화장 실에 대한 금기 문화는 그 용어의 변형에서는 쉽게 알 수 있다. 뒷간-통간-변소 등으로 이어 지는 말은 생활에 있어서 화장실이 차지하 는 위치가 얼마나 낮은 위치였나를 짐작한다. '뒷 간'에서는 공간적인 불평등이 존재하고, '통 간'에서는 비하당하려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 끼고, '변소'에서는 예체 타당하지 않게 보이려 는 가시적인 포장이 보인다. 하지만 이 장소의 근원적인 금기는 통에서부터 출발한다.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의 필연적인 부산물인 배설물-통은 생태학적 으로 보았을 때 자연에서 꼭 필요한 행위이며 물질이다. 땅이 식물들 자라게 하는 것은, 대개에 공기가 있어 것도 이 생명체의 배 설이 만들어낸 산비료라는 자연 현상인 것이 다. 하지만 인간의 배설은 그다지 큰 위치로 자리잡지 못했다. 논이나 밭에 쓰는 거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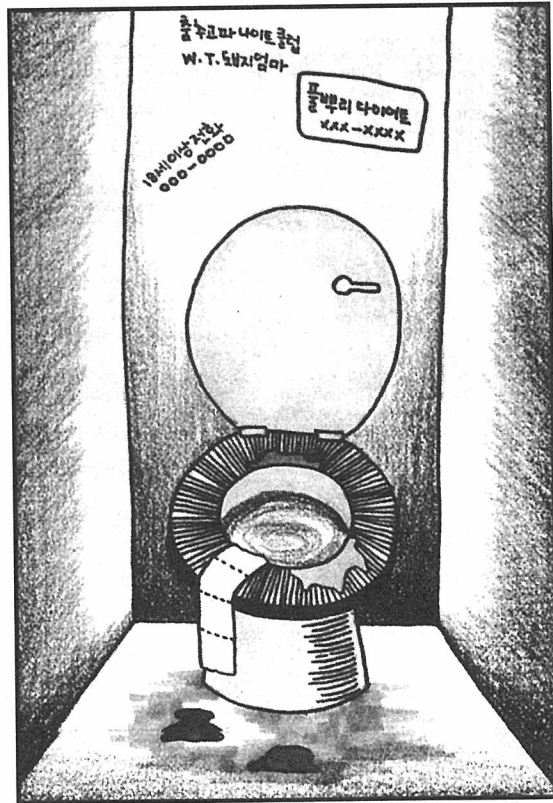
활용되거나 민간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으나, 그다지 유용한 자원이 아니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통 은 꿈에서 금과 동양의 사물로 등장한다. 통-금, 사실 둘 사이에 공통점은 좁게 보면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둘 다 인간의 삶에 있어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통은 살아있는 데 필수적인 생리작용의 부산물이고, 금은 유익 한 삶을 위한 상징적인 자원의 생이다. 둘은 노란색의 땅이라고 단단하기보다 물렁한 상 태로 있다. 하지만 통-금은 반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통은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 지만, 금은 특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라는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 발생한다. 그래서 통 은 무기처럼으로 인식되고, 금은 매우 가치가 높 은 사물로 정의되어진다.

이렇듯 금은 인간의 기대설리가 잘 표현된 상상계이고, 통은 현실적인 것이다. 배설하고, 생각해도 오묘하고, 나오는 고통을 수반하고, 변비가 심하는 더 기괴한 통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통은 유쾌한 소리의 단골 손님으로 등 장하고, 운이 없으면 대표적인 상징물로 등극 한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결국 통은 모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배설물이고, 이로부터 자 유로운 수 있는. 어떤 이유로 통에 대해, 혹 은 그것을 지닌 통을 미워하고 금기시하 는 인간의 편견에는 자신이 깨끗하다-자신이 진실하다-자신이 아름답다-자신이 우월하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려는 환상적인 사고가 꼭 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인간의 오류는 역 사 속에서 위선과 거짓으로 만들어지고, 인간 이 인간을 지배하며 착취하는 기이한 현상까 지 만들어냈다. 결국 통은 이러한 현상으로 단 호하게 등장한 인간의 이성(理性)을 직접적으 로 무너뜨리게 하는, 광범한 인간집단을 증명하 는 직관적인 증거이며, 항문을 통해 나오는 노 폐물 이전에 우월하다고 믿는 자의 기대설 리가 버린 소멸된 원형이다.

배설의 범위-욕

다시 화장실-공간으로 돌아온다. 아직까지 다 나오지 못했다는 창자의 충고를 받아들이 며 배설은 계속된다. 나의 상상은 계속된다. 배설은 결코 통만을 안착하지 않는다. 또한 배 설의 장소로 화장실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어 린, 내가 이야기하는 이 언어 작용도 배설이 다. 똥이-똥-생각-과로-피로한 언어의 노폐물들 이 뚫어지면서 앞으로 나온다. 때로는 너무나 남 새가 나는 욕도 있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배설은 주위에서 쉽게 찾 아볼 수 있다. 음악, 미술, 영화, 정치 등등 수 많은 인간 사회의 영역에서 배설은 실제없이 일어나고 있다. 화가는 똥을 배설하고, 가수 는 노래를 배설하고, 시인은 시를 배설한다. 하지만 직접적이고 정당한 배설은 실태와 금 기를 수반한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통을 그대 로 보여주는 것처럼 드러낸 행위로 간주한다.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예인을 소개받다고 하자. 그런데 그 예인의 얼굴이 매우 못생겼 고 하자(실태)에 이 일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과 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대부분에 있어 느낀 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인상이 좋군요' 라든지 '참 마음이 고운 것 같습니다' 또는 '편안한 얼굴입니다' 등의 언어적 유희, 다시 말해 다소 거짓이 섞인 말 로써 대응할 것이다. 실태로 이의 비추게 할 념과 같은 거짓이나 위선이 필요한 일은 우리



수필부문-당선작



심사평

"다양하지만 독특함 부족"

김정민

(한국어교육과 강사·문학평론가)

수필이라는 글의 형식은 다른 장르에서는 장 르적 특성상 쉽게 표현할 수 없는 삶의 특정한 체험과 문제를 다루는 형식이다. 때문에 수필 에서는 타 장르와는 다른 삶의 근원적이고 직접 적인 문제를 표현하며 있어지는 체험에 대한 사유와 성찰을 묘사기 이루어진다. 그런 점을 들어 살펴보면 이번에도 두문고 원고에는 독 특한 수필의 향기는 일찍이만 다양한 맛은 있었 다.

원고집의 작품은 풍부한 감수성과 더불어대 의 고요이 서로 자연스럽게 융화되지 못한 하 위함이 있다. 그것은 감성이 표현주의로 흐를 때 자칫 형식과 내용의 부조화를 야기시키기 쉬운 때문이다.

이주환의 '구인공고'는 복학 후 아르바이트로 돈을 마련하려는 필자가 사회의 거짓 광고에 대한 충격을 미발견으로 형상화하였다. 하지만 소박한 수준에서 전개되면서 문학적 감동이 더 필요한 글이었다.

인수인의 '그 마를로 가는 오후'는 시작체험 이 소설적 형식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작품이었 으나 수필이라는 장르의 차이를 산문전성인이 결 어되었고 "뿌연시각을 하고서"라는 두 문장을 읽 었다 본다" 등의 문장이 문체가 되었다.

김동진의 '서라벌 기행'은 한문적 문체와 다 양한 배경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방대한 분 량에 비해 정제된 수필의 맛이 다소미미하여 감동감을 느끼기란 것이 어렵다고 지적되었

고, 친구와 회화의 대화나 단편적인 사유의 결과로 모티프나 사유과정 없이 진행되어서 글 의 연결성이 다소 빈약하게 되었다. 글의 성격 이 기행문이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체험과 거 거 없이 올려놓는 내적 반향이 서로 맞물리면서 소재와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하고 여행자의 감 동과 내적 고백이나 대화와 유리된 점어특히 아쉬웠다. 이 작품은 가적으로 뻘뻘했다.

김정영의 '배설에 관한 소고'는 삶의 진실에 대한 수필적 인식이 돋보인 작품이다.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과 바깥 세상의 변화와 타락상 등이 대조되는 기분주도에서 작려한 인간의 참모습을 역자적기 몸으로써 배설을 통해 흠미 넘치는 재민식이 가능한 공간을 설정해놓았다.

또한 장소, 대상, 범위라는 행위를 통하여 다양한 대상의 위상을 지칭하고 결국 배설이라는현 상을 하나의 소위관 언어라는 데로 필자의 인 식이 다다른다. 몇몇 오발과 비문이 발견되었 지만 인간의 숨겨진 진실에 대한 해독은 시작 이 돋보여 이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하였다. 당선작의 김정영과 가자의 김동진에게 다시 축하의 말을 전하고, 외대학보의 발전과 당선 자들의 앞날에 무운을 바란다.



세로는 천년이 열렸다고 온통 난리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2000년이러려 기뻐하는 올해, 세계의 1/30의 사람들은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를 사용하면서 올해도 어느 해처럼 지내고 있다. 왜 우리는 이렇게도 흥분한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도 올해는 단지 4333년의 어느 하루일 뿐인데 말이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참신함은 그만큼 세상의 문화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보면 새 천년은 딱 기차편으로 보면 별 일 없는 한 해일 뿐인 것이다. 내가 작년 경주를 다녀온 것은 내 25년간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한 작은 돌발이었다. 우리의 천년했던 옛 지혜가 가장 잘 보존되어있는 경주에는 천년전의 향기가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느끼고 싶었다. 한 외국인이 김치가 무엇이라고 물을 때, 우리가 그 성분이 무엇이고 맛은 어떻고 하는 설명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은 그 본질을 느끼지 못한다. 그 자리에서 김치 한 점을 찾아 직접 느끼게 하는 편이 훨씬 나은 것이다. 이 것은 선가(禪歌)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한 예이지만 나는 그렇게 서러움을 느끼고 나를 돌이켜보고 싶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자신을 느끼는 시간 여행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여행 전날 컴퓨터게임으로 밤을 새웠으면서도 나라 함께 서러발에 갇혔던 친구 삼근이와 항상 좋은 말습 많이 해주시는 임은숙 교수님께 고마움을 표하고싶다.

수필가작 당선소감

김동진(서양·포르투갈어 3)

서라벌 기행

“저민관개성 김은사지, 이견대, 불국사 등의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니다. 함흥전군과 독자 여러분의 이해 바랍니다.”

I. 서라벌을 향하여

삼근이는 컴퓨터를 해본 세상에 막에 금에 잡이 들었다. 부산 불거이트를 나오고 얼마간, 녀석이 내게 주었던 글을 읽었다. 그 동안 컴퓨터 게임에 정신이 나간 줄 알았었는데 받아다 볼륨이 써온 자신만의 글을 내게 준 것이다. 그걸로 갑작스런 나의 경주에의 동행 요구에 녀석도 생각지 못한 글을 내게 준 것이다. 녀석은 내가 차원에서 심심함까지 가져온 글이라고 했지만 나는 녀석의 뜻하지 않은 참신함 배려가 기분 좋았다.

잠시 고개를 돌려 한 박을 보았다. 개발로 인해 파헤쳐진 땅과 산들로 누더기처럼 변해버린 숲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새털구름 부러져 푸른 하늘 아래 자연스러운 산 능선과 갈색의 앙상한 나무들은 아직도 정겹게 느껴졌다. 그 풍경은 나에게 보여준 내게 이 길을 달리고 있는지, 이 길을 통해 경주로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속으로 되뇌어 보았다.

스물 다섯의 대학 학생인 복학생: 취업-정년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을 부양해야 할 부담감,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어정쩡한 학생 신분, 순수 학문에서의 열정이 현실의 벽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시기,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에게는 사춘기처럼 더욱 마음이 혼란스러운 때이다.

예전부터 나는 뿐이었던 고속도로처럼 내 몸의 길을 따라 천년 전의 승려와 지혜를 느끼기 위해 이 버스를 타고고 내려와 있었다. 작년 이맘 때 즈음에 경주를 하루동안 보고 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즉흥적으로 결정한 여행인지라 짧은 여정에 불국사와 석굴암은 보지 못한 채 시내 중심가에 머물렀었다. 올해까지 이어진 아쉬움, 그리고 동행자를 보고 싶은 마음까지 겹쳐 나는 이번엔 다시 경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의 아쉬움을 채우고 복잡하게 얽히었던 내 마음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기 위해 친한 고도의 소박하면서도 강인한 정신을 접하려고 하는 것이다.

II. 동해구가는 길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찬 시간이 한 박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나로 되는데 잡이 들었던 모양이다. 눈을 떠보니 캄캄해는 이미 경주 불거이트의 기와 지붕이 보였다. 그리고 경주의 길목을 지키는 화랑상이 눈에 띄었다. 십여 분을 더 가서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오늘의 예정지, 동해구로 가기 위해 일정에 해준 메모를 꺼내보았다. 그리고 확인을 위해서 터미널의 안내판에 길을 물어보았다.

“아, 수중 왕릉 말씀하시는군요. 수제 가는 버스 타시면 됩니다.”

우리 4,800원을 내고 10시 40분에 출발하는 일반형 버스로 두 장을 샀다. 그리고 기사 아저씨께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물어보았다.

“가다가 대왕암 정류장에 내리세요. 내려잡아 한 시간이면 도착할 겁니다. 근처에 김은사지, 이견대까지 있으니까 걸어서 구경하면 좋을 거예요.”

아저씨의 친절함 설명에 나는 내륙에 가까운 김은사지에 우선 내렸다가 이견대와 문무왕릉을 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후시 돌아오는 길에 불국사로 가는 버스가 있는 지도를 물어보았다.

“그 쪽 버스 정류장에서 경주 시내로 오는 걸 타다가 보문단지에서 내리세요. 보문단지에서 불국사 가는 버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갈아타면 될 겁니다.”

아저씨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시내 도로를 따라 경주역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탔다. 특히 50대 이상 되어 보이는 노인들이 많았다. 우리 한 시간 거리의 대왕암의 미역을 발취해야 하는 상황이 옮겨 두렵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경주 월드컵에 삼대 소녀 맞이 내렸고 사기지를 완전히 벗어나 좁은 반 이상의 승객이 하차했다. 몇몇은 엑스포장을 지나고 산길로 들어서자 거대한 재방이 나타났고 그 위에 큰 호수가 보였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국도를 타고 한계령을 넘듯 힘들게 고개 길을 넘어갔다.

대왕암의 원종환이 경주의 동쪽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라고. “한한 길을 보니까 삼국지의 속이 생각나는대.”

나는 삼국지의 속(蜀)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했다.

“혹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강유가 아닐까? 재갈람의 그늘에 가려 후세에 빛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다고 생각해. 재갈람에 비해 능력이 뒤지지 않았지만 내부 권력을 다지지 못하고 위나라를 장악하려다가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을 뿐인 것 같아. 젊은 할거에 의욕이 너무 앞선 탓이지. 하지만 강유가 좀 더 경륜을 쌓고 조조의 권력을 잡은 다음에 반란에 나갔더라면 재갈람에 뒤지지 않았을 게야. 강유의 위대한 재갈람의 뜻에 따라 위를 열 한 번이나 쳐들어 간 일에서도 알 수 있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우리는 위(魏)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거론했지만 촉과 오에 비해 너무 영웅이 많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지한 정도였다. 우리의 대화



가 삼국지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았지만 버스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데는 꽤 효과적이었다.

버스는 산길을 굽이굽이 올라가 타날을 뚫고 깊은 계곡 사이 위에 있는 다리 위를 지나갔다. V자형 계곡의 수려함이 잠시 시선을 돌리게 하였다.

우리는 삼국 시대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었다. 그러다가 친구는 삼국시기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했다. 중국의 논점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고 신라 중심의 역사를 서술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를 정확히 서술하지 못했다는 단점을 지적했다. 나는 고구려와 백제는 중국과의 대립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중화를 지향하는 한족이 두 나라 멸망 후 중화에 반하는 역사를 낳고, 삭제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친구는 고구려의 대무신왕(大武神王)의 예를 들어 이야기했다.

“대무신왕은 삼국시기를 통해 일부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고구려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지. 새로운 나라였던 고구려를 강성케 해서 부역을 공격하였고 중국 본토를 공격해서 한족을 발발 발게 만들었어. 우리 역사상 중국을 직접 공격한 인물이 몇이었는데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용이였음을 알 수 있지. 또 대대왕이라는 칭호를 사용된 점을 보면 왕의 임의가 뛰어났음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대의 사실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역사학계는 중국과 일본의 사학계

에 너무 의존적인 것 같아. 그리고 제대로 연구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조차도 실증주의에 표방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잖아. 역사학이 주제적인 민족학을 함양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고증이 필요할 거야.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민족주의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대무신왕이 중국 본토를 침입해 다녔을 때의 기상을 역사서의 문맥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땅은 왜! 왜 조그만 한반도가 아니었다는 생각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니까.'"

친구는 잡지에 연재되었던 '바람의 나라'라는 만화 이야기를 해주었다. 대무신왕의 기록을 토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문학이 아닌 만화에서도 예술적인 작품으로 승화할 수 있었으면 하고 시도를 높이 평가했다.

친구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지만 상급한 결론도 있는 듯하여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자랑스러운 역사에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데 포함되어. 하지만 우리 역사학자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수증적으로 연구하고 받아들이지만은 않을 게야.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의 역사학에 대한 인식과 투자의 부족이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발전이 더뎠다는 것이지요. 또 고구려, 발해처럼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영토를 두고 있었던 나라들에 대해서는 고종제가 재한적이 있기 때문에 유물론적 사

실을 밝혀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게야." "그런 식으로 변론해서는 안되지. 역사학자들이 진실로 자신의 일에 충실하다면 역사적 사실을 밝히기 위한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하잖아. 역사학자가 재조전 때문에 옛부터 내려오는 것과 실증주의에 대해 무조건적인 긍정으로 책을 쓰면서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진실로 역사를 연구할 의미가 없다고 봐."

논쟁이 열리게 되어오는 즈음 버스는 험한 산을 다 넘어 평원이 있는 곳으로 나왔다. 길옆으로 멀리 병풍처럼 작은 산들이 늘어서 있고 그 사이에 대왕암이 바닷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고구려시대의 문고의 참인자들이 황룡사의 방울을 때로 옮기던 중 이 강에서 최초로 일어났던 참 이들이 대왕이 되었다는 설화가 있는 곳이다. 잠시 후 버스는 김은사지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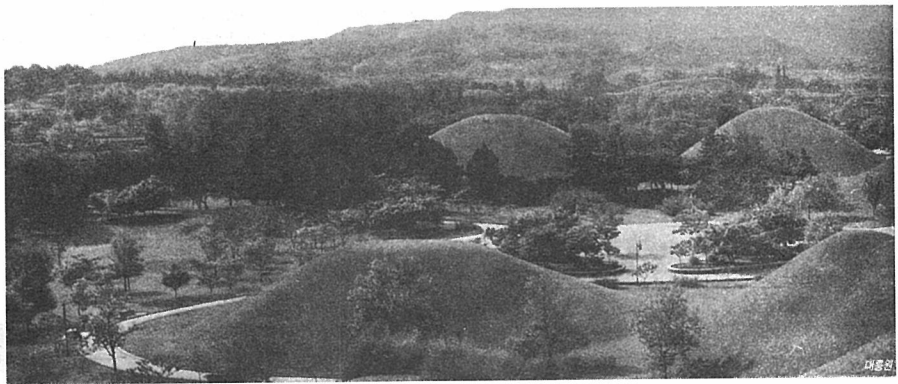
III. 문무왕릉(文武王陵) 대왕암

하루의 모래독을 따라 몇 킬로미터에 걸쳐 모래사장이 이어져 있었다. 유적지를 본다가 보다 해수욕장에 온 느낌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곳은 정말로 불길한 해수욕장으로 유명하고 있었다.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면서 바다의 자갈이 보였다. 대왕암으로 걷는 도중 여기저기에 불을 파왔던 자갈을 볼 수 있었다. 친구는 발난 불들이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불었다. 자갈이 아닐까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하지만 원형으로 놓여진 자갈들과 불로 쓴 곳과 바위에 있는 종이조각들, 바위에

수필 부문-당선작



천아출 금관



항에서 녹아있는 초를 보아서는 누군가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았다. 어떤 자국에서는 열주알도 발견되었다. 마침 멀리 대왕암 근처에서 천막을 두르고 곳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이 곳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대왕암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해변도로 옆으로 놓인 횡파와 편의시설들이 눈에 거슬렸다. 장사를 하면서 안에 풀집은 해아리지만 적어도 우리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적지 외에 무분별하게 건물들이 들어선 것은 보기 좋지 않았다. 친구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문화유산 하는 일이 다 그렇다며 입을 딱꼭거렸다.

드디어 대왕암과 가장 가까운 해변도로 왔다. 멀리서 하얗게 보였던 부분은 갈매기 때 때문이었다. 우린 대왕암을 마주보며 잠시 감외에 있었다. 친구는 조용한 분위기를 깨면서 이야기했다.

"이 정도 거러만나 수영해서 갈 수 있겠네. 배를 탈 필요도 없이 수영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 무문왕의 뿔기루를 지기로 운반해서 뿌렸다고 되겠다."

친구는 원 팔을 치켜들고 오른 팔로 수영하듯 자세를 잡으며 갑자기 막사를 부렸다. 아마 내가 너무 진지하게 바다를 쳐다보고 있어서 기분을 풀려주려고 그러는 것 같았다. 이번 여름에는 저기까지 기린코 해일해 갔다 오겠노라고 제멋대로 표정도 지었다.

내적의 이빨에 나도 굳은 얼굴을 피고 싶었다.

이제 대왕암에서 본 동해 바다는 탁 트인 느낌이었으나 대왕암 앞에서 본 바다는 좀 더 유독하게 들려왔다. 특히 만기가 많이 보여서 담담해 보였다. 하지만 불피운 수많은 흔적과 옆에서 치루어지는 곳만이 묘한 신비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아직은 차가운 날씨라 군데군데 구덩이로 연인들이 제비하곤 한적하였다.

대왕암은 철쭉하는 파도에 맞춰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의 좋은 보금자리로 보였다. 최고의 지위에서 삼국통일을 이룩하고 대제연에 한 줄의 제로 돌아간 무문왕의 옛 일을 생각하니 인생과 인간사의 무상함이 느껴졌다. 남은 것은 당시를 되새기는 바위섬과 바다뿐이지 않은가. 이는 푸른 하늘과 동해의 부처지는 파도를 보면서 잠시 세월의 무상함을 생각하고 있었다.

국산은 발이진지 꽤 오래 되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잠시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덤은 아주 가는 소리로 바다를 마주 보고 일렬로 서있는 사람들에겐 무양한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사람들은 무덤의 소리와 손에 든 총채같은 막대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손바닥을 비비며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서론에서 예순 노년에 이르러까지 다양한 연령이 섞인 것 같았다. 바람을 등지고 앞으로 세운 천막에는 신장같은 그림자가 석기 같아 있었고 무덤의 앞에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천막 바로 옆에서는 하얀 한복을 입은 아저씨가 정을 치고 있었다. 이 곳의 특성이었다면 무덤이 무너짐을 입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잠시 후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백사장으로 걸어 나왔다.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 와서 다시 자와 한자를 적어놓은 것을 보았다. 친구는 장난기가 뽐뽐했는지 그 옆에다가 '바보'를 크게 적었다. 나는 그 밑에다가 '寒金' (한금)을 적었다.

정유장에서 경주 시내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다. 아직 방학전이라 사내 반씩 짜여서 여행은 중고등학교를 자주 볼 수 있었다. 학생시절의 추억이 갹이 될 것 같아도 생각했다. 버스가 한 시간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판기에 시 카피를 한 장씩 넣고서는 자리를 앉았다. 신발과 배낭이 눈에 띄었다. 나는 뜨거운 커피를 후후 불어서 한 모금 마시고는 입을 열었다.

"저녁에 나 혼자 경주 오려고 했었다는 말

했었다?"

친구는 갑자기 진지해진 내 어투에 귀를 쫓겨 새우며 들었다.

"사실 이번에 부산에 내려온 것 말이야... 생각을 해보게 위해서였다. 앞으로 가아할 구체적인 내 삶의 모습들과 해야 할 일들 말이야. 집에 와서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날들과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을 많이 생각해 보았어. 이제는 실리처럼 얹어있던 생각들을 정리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서 혼자 떠나고 싶었던 거야."

"그런 건 집에서 풀면서 해도 되잖아. 우리같은 백수가 많아. 백수는 학생의 또 다른 이름이지. 하하하 정리는 되는 것 같아?"

나는 좀 결연한 듯 말했다.

"음, 어느 정도는..."

옆에서 여행 온 학생들이 즐겁게 재담하는 소리가 들렸다.

"예전에 너는 날 보고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못했다고 했지? 아아 그랬을지도 몰라. 너는 이미 그 때 내 생애의 마지막을 날 못마땅하게 하기 위해 중간의 과정들을 역량, 특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 설정했다고 했지. 노년부터는 젊어서 번 돈으로 쓰고 싶은 소설과 영화를 실 것 그러보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말아. 솔직히 나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때를 사춘기라 여겼고 실제로 좌충우돌하며 보았어. 하지만 그것들은 내 인생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탐색이 아닌 즉흥적인 반항들이었다. 오로지 머리 속에서 추상적으로 맴돌던 꿈이란 일류대학 입학과에 붙는 것이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고 내 청소년기는 그 단순했던 꿈으로 꼭 차 있었어. 그런데 그 꿈이 무너지고 내가 의식하지도 못했던 사 이 지금의 화교와 화교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인지 난 늘 좌절해 있었다. 육 년 간 머리가 커 가면서든 계속 그랬었지. 하지만 대학 생활과 군 생활을 통해 지금까지 오면서 단순했던 학창 시절부터의 꿈이 결코 내 인생의 전부라 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어. 그리고 난 정말 내 인생을 걸어야 할 꿈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다 그리고 그 때! 문이라도 예 제 책들을 만나보고 싶었던거야."

친구는 멍하니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짜시, 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 래, 난 냉철하게 젊은 시절을 돈버는 기간으로 생각해. 대학은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 단순한 거저가는 곳일 뿐이고. 학문 연구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직장 위치 위한 기간일 뿐이야. 젊을 때 돈 벌고, 나이 들고나서 내 하고싶은 취미를 하면서 여생을 보내는 게 현실적인 계획인 거지. 세상을 단순하게 생각하며 살아야지. 난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나는 다시 바다를 보며 말했다. 횡파 시아로 대왕암이 일부만 보였다.

"그렇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머지 시절을 결정할 우리 도래는 이런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끔씩 이차선 국도를 따라 빠른 속도로 차를 지나갔다.

멀리서 엔진 소리를 내며 버스가 오고 있었다. 한 번 이야기를 멈추고 버스에 올라탔다. 신리의 동해구를 등지고 다시 경주 시내로 향하였다.

VI.우연한 만남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겁게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에게 못 이겨. 마찬가지로 즐겁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못 이기지. 내가 즐기며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봐."

친구는 백백한 여정에 잔날 밤새운 피곤이 겹쳐져서 약간 뻣뻣한 눈자위를 굴리며 내게 말했다.

"나는 인생 마지막을 취미를 위해 살 것이라고 했지. 나도 너와 비슷한 길을 걸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취미를 끌고 쓰고 만화를 그릴 것이라든가 것과 달리 나의 인생 마지막의 글쓰는 일은 내 인생 모두를 가는 작업이 될

거야. 사실때에는 작품의 소재를 찾아 자료를 수집하고 대강의 아웃라인을 설정할 거야. 사실 때 후반부터는 최고의 글을 위해 책을 집필할 것이고. 하지만 그런 활동을 위해 나는 삼십대를 글쓰는 훈련과 경험을 쌓는 일로 보낼 거야. 어떤 곳에 가더라도 일단 나중의 목표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돈과 경험을 얻기 위해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니까. 나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그것이 내 궁극적인 목표가 될 거야. 삼십대의 과정이 어떻게 바뀔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결말은 한 곳으로 모이는 거지."

나는 스스로를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에 차라리 기뻐하고 있었다. 그 동안 머리 속에서 맴돌던 것들이 차례로 정렬되고 있는 것이었다.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할 '나이프 워크'를. 친구는 멍이 있는 태도를 해 주었다.

"예전에 한 작가가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한 말이 생각났다. 너도 그렇게 글쓰는 것을 즐기며 살아야지 비단 다."

최고의 글은 소멸하지 않는 욕망이다. 나는 죽는 순간까지 나의 어떤 작품에도 만족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 소설이든 시든 내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없고 그것들의 속성, 즉 불완전함, 추상성 체계라는 점은 늘 나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역사상 위대한 예술가는 늘 자신의 작품이 최고를 담아내지 못함을 고민해 왔다.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인정하더라. 그 는 그 이상의 것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그 작업이 어려울 때 방황하곤 한다.

어쩌면 그 고민은 인간의 사상을 의무로 표현하는 매개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가끔씩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죽도'의 허무함을 어떻게 글로 색으로 소리로 완전히 표현할 수 있었는지. 그저 예술가는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완성하지 못하고 근사치 밖에 갈 수 없음을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술가의 비애로 속명이다. 아렸든 나의 길은 채워질 수 있는 욕망을 속명으려 해서 나 타냈다. 하지만 예전의 단순했던 입시의 인생 목표와는 달리 이제 소멸하지 않는 꿈으로 나 타났기에 오히려 흐뭇하였다.

버스는 왔던 길을 따라 다리를 건너고 타원을 지나 다시 산을 굽어 굽이 돌며 경주 시내로 돌아오고 있었다. 친구는 갑자기 '개미' 이야기를 꺼냈다.

"평정한 개미지. 인류의 사물에 대한 관념을 통틀어 비관한 책이야.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사물들을 이해하는데 그것은 잘못이야. 이 책의 저자는 개미를 예로 들면서 인간은 개미를 한 마리 개체 단위로 이해한다는 말을 했다. 인간은 개체로서 기능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개미는 한 마리 한 마리가 한 개체로서의 부분을 이루는 기능들로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체 단위로 나눌 수 없지. 개미가 흔히 분류하는 여왕개미, 수개미, 병정개미, 일개미 식의 인간 조직적 관점으로 개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개미 집단은 그 자체를 한 개체로 보아야 하고 각 개체들은 개체 유지에 대해 작용하는 세포,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지."

내적의 '개미' 문장이 나의 관심을 끌었다. "자기는 궁극적으로 말하지, 인간이 지구 외부 우주선을 띄우며 쓰는 천문학적인 문명 일부만 태워서 지구 내의 생활과 교감하는 일

에 무지하다면 자연 개별로 멸종해 가는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결국 인간 자신의 환경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말야. 유는 우리 자신이 사는 지구 내부의 현상과 주변의 이해가 급심무이고 자연을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나는 친구의 해박한 해석에 맞장구쳤다.

동해구를 따라 지 삼십여 분 후 버스는 보문 단지의 경주월드 앞에 도착했다. 9월경 엑스 포켓의 건너편으로 무인 사내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갔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오후 2시였기 때문에 짐을 꾸러야만 했다. 우린

건너편 식당을 보고는 정신을 해결하고 불국사로 가지고 한의를 보았다.

"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

IX.천년의시간여행

오전에 우리가 왔던 그 길로 경주 불개이트를 빠져 나왔다. 버스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본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높였다.

멀리 왼편으로 경주의 남산이 보였다. 높이에 비해 앞면이 많이 드러나 있고 형체가 가파른 곳이다. 산과 때부터 사라발 사람들의 애환을 함께 해온 산이다. 육촌의 설화에서 강애왕릉, 포석정까지 천년왕국의 꿈이 서려있는 땅이다. 작년 경주에 왔을 때는 남산의 서쪽 아래만 보고 말았다. 특히 신리의 한이 서린 유적지를 대하고 왔던터라 돌아갈 때도 애달픈 마음이 가득했었다.

하지만 오늘은 신리의 강건한 기성과 신비로운 사라발 문화의 정수를 맛껏 맛볼 수 있어서 만족스럽게 돌아올 수 있었다. 내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 진정한 예술론에 대한 생각들이 천년을 넘게 버텨온 이 땅에서 하나씩 싹타래를 뽐내고 있는 것이었다.

역설적으로 거기에는 어떠한 해당도 없었다. 다만 눈으로 보고 음운으로 느끼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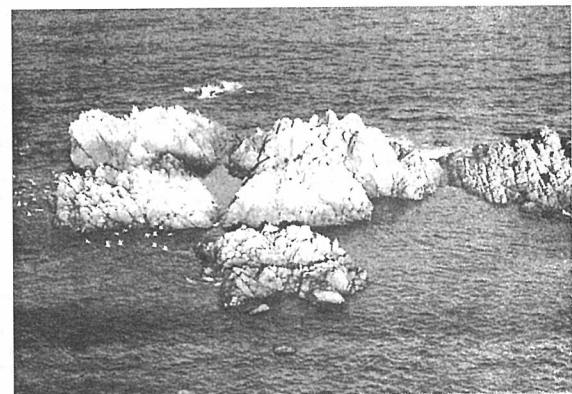
신리가 불교로서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켰으며 고유한 문화를 융합해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토대로 발전시켰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단순한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닌 사상체제로, 예술론의 발화처(發火處)로, 더 나아가 첫 통일왕국의 민족 문화 결정체로서 불교는 신리의 것이 되었다. 그것이, 신리의 불교문화는 곧 사라발의 불국토화

(佛國土化)요, 그 흔적들이 토함산의 석굴암, 불국사이고 동해구의 김은사, 대왕암이며 저 남산의 유적들이었다.

그래서 천년고도 경주는 한민국의 고유문화의 보고(寶庫)로서 신라 멸망 후 천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섬스럽고 매력적인 곳이다.

친구는 벌써 잠이 들었다. 남산이 참문 뒤로 사라지고 난 다음 나도 편안한 자리를 뒤로 남길 수 있었다. 또다시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끌어줄일 매력들을 사라발에 남겨둔 채 버스는 어두워지는 고속도로를 따라 부산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1)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삼미이는 이 종업원을 보고 소리쳤다. 종업원은 같은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적의 대학교 동문 1년 선배라고 했다. 군대에 있을 때 신리가 종업원 때라는 바람에 복직 후 연락을 못했던 모양이었다. 학교에 다닐 때는 꽤 친했다고 했다. 사이좋게이라는 이름의 친구 선배는 우리가 짐을 꾸린 후에 카피와 음모수를 주면서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목적인 불국사의 석굴암 가는 길도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이 가게는 한 건물에 식당과 기념품점을 같이 하고 있었다. 선반 위에는 커다란 할아리부터 금관, 석가탄, 다보탑 모양까지 다양한 경주 특산품들이 놓여 있었다. 식당을 나온 후 신리의 발에 따라 건너편에서 불국사행 1번 버스를 탔다. 앞 좌석 창고 창고 차는 오랜 친구가 아직 불국사도 못가봐서 부둥켜안았다. 나는 친구의 무릎에 팔짱을 끼면서 버스에서의 지루함을 보냈다. 불국사 정류장으로 도착하는 데 약20분이 걸렸다.



문무대왕 수종물

수필부분-당선작



만약 내가 당선이 되어서 당선 소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남들처럼 활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나는 꼭 될 줄을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소감을 써서 하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오게 되니 그런 자신감은 언제 다 없어져 버리고 쑥피함 그리고 부끄러움이 먼저 몸을 감싸게 된다. 또한 다시 한 번 읽어보니 부족한 부분이 왜 이렇게 눈에 띄게 되는지 참.....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읽어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고 응모의 기회를 주신 외대 학보사 여러분께에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93년도에 입학해 해서 7년 동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짜증나는 일도 많이 있었던 점도 학교를 졸업할 해에 되는 제가 이런 큰 선물을 받고 나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중에 이런 시구가 있었습니디.

'이미 준 사랑은 있어 버리고 못 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려니'는 저도 이제 그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못마땅했던 일들 다 잊어 버리고 외대 졸업생으로써 학교에 몇몇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학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이라 하여당선 소감을 마칩니다.

소설가작 당선소감

이상돈(서양·노어 4)

어떤 운동회

외대학보

18
2000년 1월 18일 754호

36회

외대신문

"아 저리봐!"
한 10미터를 활차게 달려온 아이의 기세에 놀려 민국이는 옆으로 물러났다.
그렇게 민국이를 밀쳐내고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발굽만한 공을 안손으로 움켜쥐었다.
"아 간다." 타자 쪽으로 활짝 공을 던진 그 아이가 민국이를 훌쩍 쳐다본다.
외아에 서 있는데도 공도 잘 날라 오지 않는데, 거기다 거 어찌나 한뼉 날아온 공마저도 친구에게 빼앗긴 민국이는 말발굽이 마치 대단히 어둡혔다. 그래서 아주 못마땅한 투로 한뼉 던졌다.
"아, 나도 좀 쳐봐."
"뭐 너 이 시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어, 농치면 어떻게 할 건데."
다시 한 번 기세에 놀려 다대진 참바지를 입고, 짧은 다리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쫓아다니며 쳐다볼 뿐이었다.

민국이도 그를 밀쳐낸 아이도 그저 뿔뿔뿔을 서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공력과 수비가 교대되었다. 이번 공력에서 민국이에 팀 공격은 활발하였다. 5번 타자는 몇 번 커다란 파울을 만들다가 삼진을 당했지만 6번과 7번이 각각 안타를 치고 나갔다.

그리고 8번 타자도 온 줄게 상대편 수비 실수를 틈타 1루를 밟았다. 한 타자인 중반이가 잔루에 성공하자 모두들 환호를 보냈지만 민국이는 대단히 긴장되었다. 자기와 더불어 고무공 야구를 못하기로 소문난 중반이가 살아간 마당에 이번에도 삼진 아웃을 당한다면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았다. 적어도 중반이가 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생각하며 타석에 들어서자 합창하듯이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있던 아이들이 소리쳤다.

"아, 민트래, 민트."
어느 순간인가 수비수들은 세 네 발자국씩 타자 쪽으로 이동했다. 아예 민국이 바로 앞에 버리고 있는 아이도 있었다. 합창은 높아져만 갔다.
"민트래, 민트"

그 요란한 합창소리의 중에서도 민국이는 여자 애들의 도란 도란거리는 목소리를 구분해 내었다. 고무공을 몇 번 바닥에 튕겨 보며 속력 고개를 올렸다. 은영이와 윤영이가 대번에 눈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좀 잘해서 여자애들 눈에 띄어야 할텐데'

민국이는 입을 확대하고 날리려는 눈으로 수비수들을 노려보았다. 마침 그쪽으로 공이 왔다. 내야 수비수들은 누굴 할 것이 다 내야 발자국들은 나와 있었고 외아에 있는 아이들은 평소상대로 뿔뿔히 서 있었다. '저 아이 어리만 살짝 넘기면 되는데.....'

사실 그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았다.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 빈 기회에 '썩다' 날려 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여자 애들의 주목도 받고 머리 위로 고무공을 높이 올렸다가 주먹이 도강인양 위에서 힘껏 내리 찍었다. 아무 걸책도 나눌 수 없었다. 곧 '뽕뽕'이라는 소리, 일순간 변하는 웃음, 그 웃음 사이에 분명 여자 애들도 끼어 있는 것 같았다.

"아 민트래, 민트" 다시 합창이 높아져 갔다. 민국이가 막 타격자세를 잡는 순간 스탠드에서 한 아이가 달려나왔다. "너 민아, 꼭 민트래, 민트 알아, 하긴 나한테 뭘 기대하는 내야 바보지." 민국이 눈에는 수비수들 사이로 구멍이 뚫린 곳기 너무 맑은 눈에 띄었다.

"저쪽으로 공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비웃음 준비를 하는 아이들 머리 위로 공을 넘겨 버리고 싶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활짝 주먹을 휘둘러보았다. 국민 학생단치 않게 급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공이 넘 가지고 놀았다."
땅에 떨어져 뽕뽕 굴러가는 공도 단 번에 손안에 들어가지 않고 두 번을 놓친 끝에 잡을 수 있었다.
"실책만 몇번도 아이들 머리 너머로 공을 넘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 번에도 고무공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한삼 4교시 체육이 들은 날은 지하시에서 올라오는 뽕과 수프 냄새가 유난히 구수하게 여겨졌다. 물론 점심 먹기 전에 손을 닦아야 하는 게 귀찮았지만, 다른 아이들이 세면대에서 씻느리고 부신하듯 움직일 때 민국이는 일직리까지 고실로 돌아와 한 쪽 벽에 붙어 있는 급식 시간표를 바라보았다. '오늘이 5월 3일이니까 뽕, 수프, 우유, 어 내가 좋아하는 탕튀김도 있게 혼자 호호한 미소를 짓는 민국이를 뒤에서 '썩'소리가 나게 했다.

"아 너 혼자 운동회야? 어 좀 줘." 반에서 싸움쟁이 4 위인 장준이였다.
어렸을 때 때려잡는 편에 커다란 나뭇잎을 데인 상처를 두기로 삼아 아이들 잡주는 아이였다. 아나계 아라 유난히 민국이의 하얀 체육복만이 여기 저기에 모래 자국이 잔뜩 묻어 있었다. 민국이는 그 아이의 팔에 커다란 나뭇잎 상처가 보기 싫어 조롱하듯 자리를 이동했다. 그래도 오늘날은 기분이 좋았다. 오늘처럼 운동하고 나서 식사 당면 걸리지 않았고, 특히 좋아하는 탕튀김이 메뉴에 있어서였다. '오늘은 꼭 타타리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발리 교과 쪽으로 줄을 서기 위해 나갔다. 식사 당면인 아이들은 뽕, 커다란 쇠 술에 담긴 수프, 플라스틱 용에 담긴 탕과 탕튀김, 껌 우유 등을 지하상에서 가져와 '주먹'과 같이 한 줄로 세워 놓고 그 뒤에 있었다. 거의 다 준 바퀴 것 같았는데 배식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었다. 민국이 앉는 네 명이 줄 서 있었는데 바로 앞에 선 아이는 부반장 정민이었다.

줄에서 두 번째 같은 반이었지만 한뼉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 키는 민국이보다 한 뼉 정도 더 컸고 하얀 얼굴에, 목 주위에 활짝거리는 단발머리와 입술 옆에 점이 있는 아이였다. 민국이는 특히, 그 점이 예쁘다고 생각했다. 누구에게도 내색은 안 했지만 자신이 민영이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그 사실로 틀을 연관시켜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점을 생각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어쨌든간에 건이 한뼉이라도 해 보려고 왼 쪽으로 오른 쪽으로 고개를 '주먹' 때 보지만 민국이는 앞만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민영이와 세 하얀 체육복을 눈치채고는 운동장을 돌면서 하학자에 묻은 모래 자국을 열심히 털어 보았다.

"그러다가 배식이 시작되면 갑자기 줄이 움직이고 뒤에 아이가 때비는 바람에 민국이는 갑자기 앞으로 나가거나 슬쩍 오른쪽으로 민영이의 엉덩이를 건드렸다. 갑자기 다 한숨까지 뿔뿔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바람 빠진 배구공을 만질 때 또는 출렁거리는 물 풍선을 만질 때 또는 탕튀김을 런치 볼을 만질 때의 느낌이 낯서지만 이 모든 것과 분명히 틀린 점이 있다면 비교 할 수 없게 기분이 좋다는 점이었다. 민국이는 민영이의 눈치를 살펴보지만 앞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곧 플라스틱 시기를 건너 밟고 그 위에 수포 한 국자가, 브리콜 하나, 껌 우유 하나가 떨어졌다. 민국이는 탕튀김을 빼식하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친하지는 않지만 뽕지 동질감이 느껴지는 아이였다. 고무공 야구를

하면 민국이처럼 외아를 서서거렸고 축구를 해도 항상 수비수로 한 시합에서 3번 이상 공을 차 본 일이 없는, 많은 아이들이 같이 장난치고 때들어 데도 꼭 혼자만 불라나기 담담하게 혼자나 온 하는 그런 아이였다. 이번에는 꼭 타타리를 줄 것만 같았다. 주인을 기다리며 앉아 있는 타타리는 쿠팡호일에 싸여있었다. 잔여는 이렇게 없었는데 배식하는 아이가 자신과 친한 애들에게만 타타리를 준다는 이유로 얼마전부터 쿠팡호일에 싸여져 배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세모를기거나 네모를한 하학치 삶이나 가슴살과 통근로 보자면 한 쪽에서 길게 가늘어지는 모양의 타타리를 구부릴 내지 못할 아이는 없었다. 이제 민국이가 시키기 전에 타타리가 없었었다. 민국이는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집조로도 여겨졌다. 커다란 플라스틱 박스 속 여기저기에는 타타리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마릴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타타리 하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민국이가 시킨만큼 내밀자 올려다보았다. '타타' 식한 뒤에 놓여진 것은 네모꼴이었다. 도저히 그냥 지나 갈 수 없었다. '자난반에도 목부분을 먹었는데.....'

"뭐 내야 좀 타타리 좀 먹어봐."
"아 내야 좀 타타리만 이렇게 알아. 다 쿠팡호일로 싸여 있잖아."
"그걸 저쪽에서 있는 걸로 주면 되잖아....." 이 때 민국이는 중미리를 호화게 얻어맞았다. '아 빨리 안가! 뒷시합도 생각해 줘야 할 텐 아니야!' 미화부생 습기였다.

민국은 안절부절못하는 민국이는 달리 귀찮다는 표정을 한 승의와 식판 위에 그토록 먹고 싶었던 타타리가 아무렇게도 없게 올려지는 것을 보면 허망이 자기 자리로 되돌아 갔다.

민국이가 기차 하고 싶었던 것은 날들은 다 남아 있고 홀로 일이나 커다란 소리로 처져, '벌종', '경계'를 외치는 것이고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아이들을 굶어보는 것이었다.

현연으로는 스스로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 허가 받아서 피 제대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처럼 대신에 차 대번에 연중에서, 경계대신에 경계가 된다. 그런 이유로 무당장 발음의와 분명한 발음으로 처져, 경계를 말하는 반장이 부끄러워 하고 괜히 싫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반장이 심부름 가서 부반장 이만영이가 일어나 인사할 시켜야 되어서 예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때문이었다.

누가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쁜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따따라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해 두고 싶었다. 민국이의 구인발과 다들 모두들 이미에 확신이 없는 느낌이 날 때까지 자리를 숙였다. 답답은 무엇보다도 예쁘고 자신을 강조하는 사발이었다. 그래서 급훈도 '예쁘게 바쁜'이 되었고 넓고 넓은 교문을 꼭 학생들보고 한 줄로 가지런히 줄을 맞추면서 돌아오라고 시키는 그런 사발이었다. 답답은 배배 뿔뿔하고 키는 6학년생 중 가장 뒷자리에 앉은 아이 정도 있었지만 민국이에게는 너무나도 거대해 보였다. 그 동안 생각은 민국이에게 무엇을 요구한 적도, 아무런 심부름을 시킨 적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몇 번이나 잔느 적도 없었다. 무엇을 시킨 적이 있다면 그것은 실종쯤은 침소고 개인적으로 말을 건네자면 침소나 깨자기 해라정도 있었다. 연영이는 답답 말에 따라 고무실정들을 하나씩 건작이 있었다. 그 때 거기서 민국이는 미영이와 답답이 있는 것을 보았다. 미영이는 특별히 예쁜 아이들 사이에 인기 있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뽕생기지도 않았고 뽕 때 가슴 부위에 가장 출렁거려서는 남자아이들의 경계를 받을 있었다. 미영이는 뽕가 좁은지 비명이라도 지를 듯이 입을 다 벌리고 웃고 있었고 답답은 미영이 등 뒤에 붙어서 서서 '민아'라는 소리를 불렀다. 가슴 부위에 안손을 포개고서는 앞이 땅에서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들어올렸다. 가 내렸다 왔다. 그 때 민국이는 나쁜 자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았지만 뽕진 얼굴로 어디론가 피하고 싶었고 그 대신이 자기가 좋아하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 하는 영이나 민국이가 아닌 것이 너무나 타당스럽게 여긴 적이 있었다. 처음 볼 때 다 똑같이 보이는 흑인이나 백인들의 하학자나 검은 피부도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짐에 따라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도 더 검은 흑인과 그렇지 않은 흑인을 구별해 내고, 백인사이에서도 그 그런 정도를 나눌 수 있듯이 민국이와 반 아이들은 답답의 거꾸쪽향한 얼굴 빛깔 속에 항상 화난 것 같은 표정 속에서도 기분이 좋고 나뽕을 구분해 낼 수 있었다. 이상하게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내뽕을 뽕 애와 뽕 애가 싸운 것 같고 있지. 내야 잘 들어봐. 나는 말야야 싸우고 들어오는 것은 용서해줄 것 같고 들어오면 죽을 줄 알아. 무조건 우리 민아이가 다른 반 아이와 싸우면 풀이가지 같이 때리고 보는 거야. 말로 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없었어."
"에."
반 남자아이들은 모두 소리를 높여 대답했다. 민국이는 자신도 없고 뽕지 모르게 마비하게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그 대답의 파도에 동떨어 수박에 없었다.

"오늘이 며칠이지?"
"5월 3일이요." 답답의 표정이 좀 밝아 보이자 아이들 역시 활기차졌다.
"맞아. 원래는 예전에 없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특별히 어린이날이라고 내일 운동회를 열어 주시기로 하셨지."
"와아." 너나 할 것 없이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내내를 상쯤도 푸짐하게 있으니까 잘 해봐. 누구나 참여하는 배미터 달리기에서는 1등이 공력 3등 2등이 공력 2등 3등이 연필 한 자루니까. 이 번에는 박 터트리기 없고 화년 뽕 릴레이 달리기와 같은 것들 우리 반에서 누가 가장 잘 하지?"
"이기형이요." "그럼 여자는?"
"장미순이요." "좋아 그림 두 명이 우리 반 대표로 나가고 내일은 특별상이 있을 거야. 응원원도 많이 입고 있게 열심히 응원한 반을 공력 선생님이 직접 뽑아 상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해봐."

몇 일전부터 소문으로 떠돌아 살마 살마 했던 일이 당장 내일로 다가오자 아이들은 더 흥분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온 몸을 감싸는 그런 흥분 속에서도 민국이가 입을 열지 않을 정도였다. "이민국!" 갑자기 답답이 민국이를 지명했다. 선생들 앞에서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민국이는 혼자만 두려웠다. "어차피 너 같은 애는 달리기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응원이나 열심히 해봐. 앞잡이" 비록 대답은 예리나 했지만 민국이 정신은 맑았다.

운이 좋아 조만간 만다나면 한바퀴 2등 3등도 3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꼭 집에 공력 3등이나 연필 1자루라도 가져가야 할까 싶어 지렁이로 달렸다. "이민국!" 민국이는 두 번이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커다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상을 거리는 답답의 얼굴을 보니 그런 대로 안심이 되었다. 오늘날은 처음 있는 예외적인 날이었다.

"너 얼마 내일 체육복 좀 받아 입고와. 이상."
답답이 나가자 반 아이들은 뽕에 앉은 청룡열차라고도 있는 할 때부터 앞에, 뒤에, 옆에 앉은 아이와 아이들을 나누느라 비싸졌고 한꺼번에 떠돌아다니려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몰라지도 않았지만 개미지 않았다. 그저 말하고 있었던 것 자체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있었다. 단지 민국이 혼자 시무룩해져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렇게나 책을 가방 속에 주서 넣었다.

'휴 어째서 또 입학한데 뽕 바빠 달리지. 이제 뽕이 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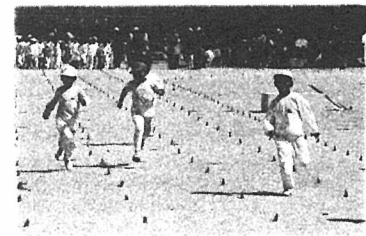
답답이 나가서 일자로 대다수의 아이들이 집으로 갔고 침소가 끝나면 남이만 아이들도 대부분 집으로 가고 교실에는 민국이의 선우 고지영이 남겨져 있었다. 민국이는 선우가 꾸물거려야 친한지 가방을 챙기지 별 할 일도 없으면서 두리번거리며 자연스럽게 선우와 같은 자를 잘 둘러보고 있었지만 개미지 않았다. 그저 말하고 있었던 것 이상한 것이었다. 때면 자못게 여자애들 머리를 잡으려고, 머리를 잡아먹고, 심하게 잘못되면 내야에게 해 무릎마에 생채기를 내게 해도 더 심하면 여자 못 보는 시선을 가지 고와서 코앞에서 돌아다니고 그 순간에만 여자 애들은 소리를 지르고 등을 떠밀며 '아이고 화를 낼 뽕' 순간 시간지나면 곧 다시 친하게 어울려 지냈다. 그렇다고 민국이는 선우가 자신보다 더 잘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뽕은 쪽에서는 겸손이가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선우가 겸손이쪽을 쳐다보았다. 겸손이는 예쁘다고도 뽕생겼다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도 그런 겸손한 외모에 공부도 중간정도로 그다지 주의를 끌지 못하였다. 다만 오늘날처럼 달리기 아가리가 나오면 꼭 가져다주었다.

"아 뭐 하나 물어봐도 되나?"
겸손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선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여자 애들은 어떤 남자애 좋아하냐?"
"남자 애들하고 똑같은데. 나 내들이 예쁘고 착하고 미운 애를 좋아하는 것과 같지 뭐" 답답하게 대답하는 겸손이었다. 그런 선우가 묘한 표정을 지어냈다.

"아 그러면 여자 애들도 프르노 책 같은 거 보냐?"
"뭐 너 내들하고 똑 같네. 나 내들이 보고 있으면 여자 애들도 보고 싶지. 다만 생애하나가 안 보는 게 최모르는 책 같은 것이 뭐."
겸손이는 곧 나가고 민국이는 이미 선우를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은영이와 민국이도 그런 것을 볼까'하는 생각에 잠시 빠져 있었는데 아무 말 없이 선우는 혼자 일문으로 나갔다. '아 갑자기' 켈링같이 동질감이 느껴진 민국이가 큰 소리로 불려 배워 보았다. 문을 나서면서 선우는 패다 삼국이를 거머쥔 채 들어 내서 운동화를 벗고 바지에 뽕구레 주위 한 번 돌은 뽕 없이 신화화를 벗고 갔다 나왔다. 하지만 민국이는 그러하지 못했다.

언제나 민국이는 선우처럼 인기 많은 아이와 함께 가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막상 이렇게 나뽕이 있게 되자 무슨 말을 할지 몰랐다. 선우는 신발과 장갑, 뽕구레, 뽕 한



“삶과 젊음, 고뇌하는 작품 부족”

작품은 독자를 위한 것이므로 실득감과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구조나 주제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경험이나 생각을 낱것으로 늘어놓는 것은 자기 위안
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남을 설득시킬 수는 없다. 특히 단편소설은 요약의 기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단의 일상의 경험, 수많은 생기의 갈래를 속에서 주제
를 드러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사건과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수면과 열정이 필요하다. 웅은 작품 모두에서 작품에 치열하게 매달리는
열정을 느낄 수가 없어서 무척 아쉬웠다. 다른 작품에 비해 어린이의 소외감을 그런데로 확실하게 드러낸 ‘어떤 운동화’는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역설하게 당하면서도 행복한 한 마디 못하는 아이의 것들인 심성이 큰 무리없이 그리고 있다. 다만 이 작품은 지나치게 평범하고 단순한 영화적 설정에 머무르
고 있다는 게 큰 단점이었다. 이상 세편 가운데 크게 돋보이는 작품은 없었지만 여러 가치를 고려한 끝에 ‘어떤 운동화’를 당선작 없는 가격으로 심기로 했다. 이런
결과는 이 작품의 성실성을 평가한 것이다. 역시가 오래된 이 문학상에 앞으로는 삶과 젊음을 고뇌하는 더욱 치열한 작품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소설 심사평

송영(문학가)



한미도 없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애절한 바
사람이 되지는 표의 밑에 두 정자의 커다란 사진이 있을 뿐이
었다. 한 정자의 사진에는 고개를 숙고한 학생이 있었고 다른 사
진에는 머리를 30도 정도로 숙고한 채 양손을 문을 공손히
잡고 있는 학생과 그 문을 막 통과하려는 당당한 모습의
젊은 여학생이 나 있었다. 복도를 빠져나와 건물밖에 나
오면서 입구에 놓여져 있는 철로 만들어진 산발타게 한
위를 뚫고 나가 휘어 보았다. 성큼성큼 뚫어보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는 선우 뒤를 제대로 운동화도 신
지 못한 채 뒤따라갔다. 교문 앞에서는 여자아이들 땀이
고무줄을 땀처럼 담겨서 갔다 대고 있었고 다른 두명이 그
위를 경중경중 뛰어 다니고 있었다. 모르는 척 지나치려는
선우를 그들 중의 한 명이 보고서 소리를 치더니 6명 모두
가 달려들었다. 그 바람에 민국이는 선우에게서 멀찍이 떨
어지면서 ‘셋’ 함 달랑거리면서 잘 뛰게하고 투덜거리고
고맙지만 곧 물러오는 그들의 제갈거리하는 소리가 울려
왔다. ‘셋’은 귀찮게 생긴 젊은이 아이야. ‘선우야 같이 고
무줄 뚫어.’

“선우야 조금만 놀다가 잘 해줄게. 음.”

“나 바빠서 그래.”

“아아 그러고 말고 조금만 놀다가 음.” 6명이 되는 여
자 애들의 애원에 가까운 요청에도 선우는 처음의 그 표정
그대로였다. 민국이는 선우가 여자 애들과 같이 고무줄을
했으면 하고 바라며 입구에 미소를 지었다. 그런 자신도
가게가 끼일 수 있을 테니까. 교실 밖에서 민국이의 소외
감의 하나가 바로 여자 애들과 고무줄 놀이 한 한 해보
는 것이었다. 다른 남자애들은 잘도 같이 어울려 고무줄도 잡
아주고 어설픈것 흉내를 내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곤 하지만
민국이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누구도 부러워 오지
않았기에. 그저 부럽게 바라만 보아야 했다. 나리만 달랑
있을 텐데..... 민국이는 제발 선우가 여자애들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를 바랐다. 그럼 못 이기는 척하느라 나리 들어야
하고..... 장만이가 팔을 담겨 보지만 담겨지는 것은 팔뿐이
었다.

“같이 놀자 뭐라고하고 음로수 사 줄게.”

“싫다니까 그래.” 여자 애들이 점점 포기하는 기색을 보
이자 타는 음로수 ‘제발. 제발. 제발.....’ 음영 거렸다.

“그러지 말고 놀다가라!”

음영은 제책 좋은 은지아 등을 떠밀어 본다.

“애씨 저 싫다고 했잖아.”

선우가 소리를 ‘꼭’ 지르자 여자 애들은 뿔뚝히 빠져나
갔다. 순간 민국이는 자신이 무명간인이 되거나 돌덩이로
변환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다들만 아침 학교는 이곳 저곳 할 것이 있을 운운 하던 웃
음들 넘쳐났다. 꼭 우리 나라가 백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하듯이. 이 날은 교문에 뒷집을 진 채 배고
고 서서 한 줄로 다니려고 큰소리치던 민국이에 담임도 없었
고 그를 도와주던 해한 선도반도 없었다.

바스티유 감옥을 향해 돌진하는 프랑스 시민들의 기세로
아이들은 오래전만에 동료집에 교문 전체를 점령해 버렸
다. 동료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다 행복 속에 잠겨 있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다는 생각에.
3학년 이상들은 단축 수업을 한다는 것에 더 기뻐했다. 몇
명의 책을 지어오는 아이들은 서로 장난치기에 분주했다.

친구의 허리를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아이. 주
먹으로 한 대 치고 도망가고 좋아하는 아이. 뒤로 가지런
히 떨어 는 머리를 잡아당긴 다음 도망가는 남자 아이의
뒤를 쫓아가 기고로 등판을 한 대 치려고 꾀을 부리는 대로
뻗어 보는 여자 아이. 달리기 시험을 위해 산 새하얀 새 운
동화를 자랑하는 아이에 그럴 한 번 발아 보려고 여기저기
서 발을 내미는 아이들. 동글동글한 초콜릿이 들어 있는
과자를 던져 친구 얼굴을 때려주는 아이. 미화부장 승기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이 번 토요일날 있을 야구 시합에 대
비해서 아직 정제하지 않은 의아수를 누구로 할까를 토론
하고 있었고 참준이는 예의 그 흥취한 원 필을 들어올렸다

내리만 연신 ‘병신 세계, 병신 세계’를 입에 달고 있었고 선
우는 운동화를 끌고도 경복궁에 놀러 가자고 졸라대는 영
은의와 장만이에게 시달리며 오고 있었고 민정이의 은영이
는 소곤소곤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교문을 통과했다. 민
국이는 학교에 가면서 우연히 만난 관식이의 같이 오게 되
었는데 관식이는 한 손에는 고무줄 뿔을 다른 손에는 크립
뿔을 들고서 한 입씩 반강아 거며 쉬지 않고 번느라고 인
사를 건넌 여유도 없었다. 점점 교문을 통과하는 학생 수
는 늘어갔다. 평소 운동장에서 조화를 할 때에는 각 반 담
임들이 교실에서 아이들을 인솔하여 나오기에 아다에 서
아 할 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공명 운동장으로
모이려고 했기에 민국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 되었
다.

여전한 관식이는 앞손에 뽕을 다 먹은 다음에도 가방
에서 과자를 꺼내 입속에 집어넣기에 비뻔했다. 관식이의 어
슬픈기러민 민국이는 승기에 패거리를 보자 재빨리 그 쪽

공무내에 가서 붙었다. 이제 8시 30분까지 5분 남았는데 만
약 제시간에 반의 위치를 찾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관식이
보다는 승기와 같이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이었
다.

승기는 아직 마땅한 아이를 찾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아
이를 이름을 열거해 갔다. 민국이는 반대파끼리 하는 야구
시합에 끼기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래도 그 수많은 열거한 이름 중에는 포함되기를 바랐다.
그런 심정으로 고개를 ‘주먹’ 때들고 그들을 뻔히 쳐다보았
지만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어느덧 아무렇게나 움직
이는 것 같았던 아이들의 흐름이 목적지를 찾아가었다. 그것
은 운동장 앞쪽에 세워 는 나무편에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색 색칠로 학년과 반을 적어 붙여 놓았기 때문이었다.

운동장으로 ‘아아 마이코 시합중’이란 음성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서로 만들어진 연단위에서 민국이 담
임이 마이크를 움켜쥐고서 예의 그 갈라진 목소리를 내보
내고 있었고 그 뒤로는 팔짱이 의자에 검은 양복을 입고
교장과 교장이 앉아 있었다. 다른 선생들 역시 색색의 제
복복을 입고 서서 관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두
명 정도만이 뛰어오고 있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
의 반이 작한 나무 막대기 위에 한 줄로 서서 웅성대었다.

“정자에 처러있” 깊게 아주 깊게 들어있는 민국이 담임
의 목소리가 들려자 아이들은 그쪽 쪽한 한 번 쳐다보더니
자신의 일에 열중했다. “죄로 나리나!”

몇 명만이 왼쪽 팔을 힘없이 들었다가 내려놓을 뿐이었
다.

“전자에 열주를 서있”
이 반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다. 민국이 담임은 당황하는 빛
을 보였다.

그 동안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필요 없이 자신의 존재 그
자체만 가지고도 길을 막던 아이들이 전혀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하지만 아이들이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

“전자에 처러있”
민국이가 좀 날카로워졌다. 아이들은 산발을 질질 끌면서
몸을 중심을 입은 군인처럼 뚫었다. 아이들의 웅성거림은
여전했다.

아이들은 민국이 담임의 거꾸로죽한 얼굴이 겹겹히 변하
는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니 눈치조차 채지 못하
고 있었다.

다만 민국이란 그 변화를 알아 차렸을 뿐이었다.
내일이 어린이 날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린이
날을 위한 잔치라는 방백이 누구로부터라도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 학교에 부하에 와서 처
을 주는 일에 민국이 담임은 머뭇거렸다.

이 때 눈치 빠른 몇몇 젊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옆으로 가
줄을 맞춰 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애정처럼 모든 학생들이
자라 전 듯이. 맨 뒤에서 뒷사람 머리통을 보면 그 머리통
뒤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게 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학년과 학년사이. 반과 반사이의 간격정도를 벌려 놓
는 정도였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웅성거림은 반만이
없었다. 민국이도 이곳 저곳을 부지런히 두리번거렸다. 이
리 저리 열심히 기웃거리는 했지만 대화 상대가 있는 것
은 아니었고 단지 무슨 대화가진 간에 개어 보려고 노력
을 하는 중이었다. 민국이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잠깐
이제 싸움으로 서서히 발전하고 있었다. 장난 삼아 오갔던
주먹에 힘이 서서히 가중되어 교환되고 있었다.

“니 죽고 싶냐?”
“웃기고 있지. 병신세계.”
그렇지 않아도 같이 놀아줄 아이도 없었는데 이런 싸움
은 좋은 구명거리였다. 연단 위에서는 다시 정신을 차린
민국이 담임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는.....”

아이들은 이제 졸음 쳐다보는 것조차 귀찮게 여기기 시
작했다.

“여러분 조용히.....” 순간 민국이는 불안해졌다. 그런데
그런 불안은 아마 이 많은 학생들 중에 자신만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아이들은 자신의 앞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니까. 싸움구경
을 멈추고 정면을 쳐다보았다. 앞쪽에서는 반장과 은영이
민정이가 신나게 뛰고 있었고 누구 할 것 없이 뛰려고
장난치려고 분주했다. 고개를 뒤로 ‘주먹’ 때보니 여자애
들 머리를 잡아잡기는 선우가 보이고 고무줄을 하느라 던
졌다 받는 승기도 보였다. 민국이는 적잖이 안심이 되었다.

아이들 모두 뛰고 있다는 사실. 반장도 그렇고 도망생
으로 소문나고 모든 선생님한테 귀여움을 독차지 하고 있
는 민정이의 은영이도 여기에 동참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다도 내일이 어린이 날이라는 사실이 그 불안감을 짝 없애
주었다. 그래서 싸움 구경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민국이 뒤쪽에 있는 아이들의 연성은 이윽크 돌 높아져 갔
다.

“너 지금 깨달은 죽는다!”
“병신 삼장하고 있지. 내가 겨우 너한테 죽을 것 같애.”
수세에 물리거만하던 민국이 담임은 전세를 다 한 번에

바뀌어 버릴 말을 찾아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상
한 미소.

“너 이리 나와 이 새끼야”

손가락으로는 누군가를 지목했다. 갑자기 닥쳐온 침묵.
완전한 침묵. 그런 속에서 아이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서로
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왜 나라는 표정으로 ‘너 말이냐
거기 안와!’

민국이 담임이 자신 쪽으로 단지 몸만 뚫혔을 뿐인데도
민국이는 몸이 한 미터 정도는 ‘뺨’했다가 떨어질 때 받는
충격을 느껴졌다. 하지만 애써서 나는 아니라는 표정을 지
어 가며 다른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동참했다.

“너 거기 진짜 안와!”
그래서야 여기 저기서 몇몇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
색 칠로 학년과 반을 적어 붙여 놓았기 때문이었다.

놀라만 가는 담임의 음성에 민국이의 불안감도 커져만
갔다. 하지만 확실히 엄청난 것들이 예고된 특이한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 중에서 자기를 구별해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더구나 여기에는 교실이 아니고 다른 반 아이
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가까이 내일이 어린이 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되
새겨 보았다. 그래서 애써 아무렇게나 않은 표정을 지어가
며 담임을 응시했다.

“너 거기 5학년 1반 15번까지 줄. 반연호.” 확인사살이
라도 하는 정면공격의 모습으로 담임은 말을 이어나갔다.

“하나 줄 세엌 내.....”

민국이 바로 앞에서 멈춰 선 번호가 열 넷이었다. 무의식
적으로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자 확인사살을

하는 총알이 날라갔다.

“그대 너 안와!”

새래래민 민국이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 한마
디 한 마디는 사실을 기억해 내고 너무 억울한 나머지 제
완장을

눈빛으로 담임을 쳐다보았다. 모든 아이들의 시선은 민국
이에게 향했다. 민국이는 그 수많은 시선 중에서도 민정이
와 은영이가 섞여 있음을 곧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이들
이. 선생님. 민정이의 은영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민국이
를 쳐다 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담임은 더 이상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그냥 넘어 갈 것 같았다.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담임의 통제에 잘 따를 것
이 분명했다.

순간 뒤에서 민국이의 등을 거칠게 때밀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앞으로 달
라나갔다.

민국이의 소환종의 하나가 바로 이렇게 전교집이 모인
앞에서 앞으로 달려나가 삼을 받아 보는 것이었는데 어쨌
든 그 절반은 이루어진 셈이었다. 통발거리며 연단위에 올
라가 담임과 마주서서 고개를 ‘뚫’ 숙이고 섰다. 고개를
 약간 움직여 보니 조화대 마다 주연장상을 강조하던 교장
이 보였다. 교장의 무표정한 얼굴. “야 조용히 하라니 소
리 안 들려. 어. 몇 번을 이야기 해야해?”

“전 한미타도 안 했는데요” 그저 입속에서만 뻘을 뿔었
다.

“오늘 선생님께서 너 내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
데.....”

광창한 동작을 취하며 흥분하고 있는 담임도 뒷지리에
단 돌아서 양복을 입고 있는 교장. 교장도 모두 인형처럼
관타리미를 하는 배후들처럼 여겨졌다. 수많은 아이들 역
시. 평소와는 달리 담임 입이 벌어지자 그냥 넘어갈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혼자 때마디 아무 소리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무슨 말인가를 해야 될 것 같

다. 속으로 수 십 번 연습을 한 뒤 간신히 양복을 움켜
져야 할까라는 소리로 “조.....” 그러나 그 짧은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담임이 오른 손으로 뺨을 때려쳤다.

“고개! 확돌아가고 이어 운동화 발이 뺨을 쳤다. 약간
뒤로 물러나 주저앉은 민국이는 새하얀 체육복 배에 묻은
모래 자국이 신명 쓰였다. ‘얼마!’ 오늘은 웃 좀 거꾸어 입
으라고 했는데.....’뺨을 한 번 떨어 내 보았다.

“너 이 새끼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야 뭐야.” 일어서
이 새끼야.” 간신히 일어서서도 계속 배에 묻은 산발자국이
신명 쓰였다. 다른 무엇보다도. ‘뺨’다시 옆으로 주저앉았
다. 주저앉아 허벅지에도 산발 자국이 묻어 나 있는 것을 보
았다.

운동화는 거의 다 끝나고 마지못해 학년 별 이어달리
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 학교에 올 때와 같
은 모습이었다.

은영의 뺨 끝에 묻은 민국이는 ‘뺨’소리와 함께 뺨에 떨어
나 “정군 이겨라. 정군 이겨라!”복잡했 의었다. “정군 이겨
라. 정군 이겨라!”와치다가 주머니 속에서 어머니가 넣어준
하얀 손수건을 꺼내들어 뺨을 풀다며 더 힘차게 의었다.

다시 소리를 질러 눈물이 날 때까지. 참준이와 승기는 인
상을 쓰고 쉼없이 시작했고 은영이의 민정이도 이상하더
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 외에 민국이를 졸졸 쳐다보는 아
이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민국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만 갔다.



소설부문-가작

1 통일기행

6·25전쟁의 상흔 - 철원

통일시대의 열인 도끼안사와 임계정이 옮겨졌다는 고석정동 옛 조상의 아름다운과 풍경을 보낼 수 있는 곳.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도 분단의 아픔으로 돌아와야 할 수 있을 만큼, 철원은 또한 분단비극의 상징물들도 많이 남아있다. 분단된 이듬해 50년 넘게 간직하고 있는 철원 땅을 찾아다니면서 동쪽의 가슴에 흉터를 남겨놓아 하는 아픈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 물려줄 수 없다는 새로운 각오로 많은 것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우독선 땅

민주화의 성지 - 광주

빛 고을 광주! 그 이름에서 우리는 광주가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 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광주와 역사를 함께한 역사! 할 만큼 광주인은 광복에 대항하여 분연히 일어서는 용기를 지녔다. 광등을 의미하는 무등산을 한가운데 품고 있는 광주 사람들은 '무등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위해 이 나라의 빛이 되기에 주저하지 않은 것이다.

수많은 민란을 통하여 뿌리내린 광등 사상은 곧 항일 운동으로 이어져 광등학생운동을 일으켰다. 이는 또한

우리 현대사에 가장 큰 희곡을 그은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를 의로운 도시라고만 하지않고 주저하지않는다. 젊은 목숨을 바쳐가며 한국의 민주화를 일군 이름없는 사람들이 이젠 말이 없이 5·18묘역에 잠들어 있다. 그들의 희생, 민주화를 열망하는 마음은 광주 시내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다.

3 소설속으로

소설 '토지'의 무대 - 하동

소설속에서 발원하여 일심·남원·구례 등의 호남 땅과 경남 하동 땅을 갈아들다 마침내 남해로 흘러드는 삼천강 500리 길. 화개를 지나 강을 타고 계속 내려가면 넓게 트인 평야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곳이 바로 소설

'토지'의 무대가 된 약양면 평사리이다. 작가 박경리는 이 곳은 무대로 19세기말 이래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의 독립 투쟁, 그리고 해방기에 이르러까지의 격동하는 한국 근대사를 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실감 있게 그려냈다. 이리따운 새색시 같은 삼천강과 장엄한 지리산, 그리고 넓게 펼쳐진 약양평이 이루어내는 풍경은 마치 조물주의 신물안녕 보는 이를 압도한다.

4 아름다운 자연, 그 뒤에 숨겨진 '한' 서린 땅

4·3항쟁을 다시 배운다 - 제주도

제주도는 관광지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지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단순히 관광지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유적 및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제주도민 최소 3만명이 죽어갔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1948년 4월 3일 그 시간만큼은 제주도민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게되었다.

미군정과 육해에 의한 분단상황 속에 존재했던 단독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민중들을 무장하고 죽이고, 지금까지 '빨갱이 집단'이라는 왜곡된 울타리를 세워 국가교과서에도 제대로 그 전실이 풀리고 있지 않은 지금의 현실을 이념 기행에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5·18처럼 안방에 4·3도 '민중항쟁'이라고 불러워지겠소.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불리는 4·3이 제대로 진상규명되는 그날이 우리가 역사의 첫단추를 제대로 끼운 날이 될거예요. <레드헌트>감독 조성봉

문화부

6·25 전쟁의 상흔 - '철원'



당시기간: 1950년

찾아가는 곳: 고석정-전적관-월정리역-노동당사-도끼안사

- ▲고석정-일찍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남한대륙의 유일한 현무암 분출지이며, 한강강 중류에 위치한 철원팔경의 하나로 일찍전의 활동무대로 유명하다.
- ▲월정리역-철마는 달리고 싶다
경원선의 간이역으로 전쟁중 폐허가 된 것을 새롭게 복원한 '월정리역'이 비무장지대남단 한계선에 맞닿아 서 있다.
- ▲노동당사-한국전쟁의 참상을 그린 벽화
'사태지와 아이들'의 3집 노래앨범 '별을 쫓아'의 뮤직비디오의 촬영장소로 잘 알려진 '노동당사'는 3층 사이의 비어 버려진 복도로로 남아 있다.
- ▲철의 길목지적관-경향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돌리는 곳
한국전쟁시 이른바 고지정환전이 가장 심했던 비로 철원-광강-김화를 잇는 철의 길목지, 노동당사 등 곳곳에 전적지가 있다.
- ▲주요의상-전면에는 출입입출 철의 길목지적관에 99명이 단채신형(복고차 이상), 전적관은 매우 희소성은 유전한다.

교통

서울-철원: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06:00~20:50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
운임 5천5백원, 2시간으로(458-485)

민주화의 성지 - '광주'

당시기간: 1980년
찾아가는 곳: 05:00-22:00까지 30분간격으로 운행한다. (592-0050)
우리현대의 최대 비극이라고 일컬어지는 광주 민주화 항쟁의 현장을 복원한 광복소설 80년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광주의 5월을 다룬광복소설 80년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기고강제-분남

80년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광주의 5월을 다룬광복소설 80년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분남항쟁-광복

80년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광주의 5월을 다룬광복소설 80년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당시기간: 1980년

찾아가는 곳: (첫째날) 국립 광주 박물관-광주시내(도청 앞·금남로·중앙로) (둘째날) 망월동 5·18묘역-무등산-중심사

▲금남로-민중항쟁의 중심지

3·1운동, 광주학생운동, 4·19 혁명 그리고 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의사와 목숨을 바쳐서 민중 항쟁의 중심지. 민주, 자유, 정의 등의 광주 정신이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망월동 5·18묘역-이 시대 항쟁들이 잠들어 있다
여러분 광복을 바라다 볼 때의 본연의 행태는 양심들이 잠들어 있는 곳. 광주를 세계의 민주 성지로 만든 5·18 민주 항쟁도 그러한 광주인의 의로운 정신의 결실이다.

자, 새내기 떠나볼까?

'역사'를 알아야 '내'가 보인다

서울-하동: 남부시버스터미널에서 09:00-17:20까지 하루 5회 운행.
운임 1만9천원, 5시간 30분 소요(521-8550)

기고강제-분남

당시기간: 1980년

찾아가는 곳: (첫째날) 관덕정-제주 대학교박물관-이국산전-와솔굴-복촌마을-제주시

(둘째날) 분남항쟁-동광리 관덕정-추사직거지-알뜨르 비행장-해안동굴-백도일출지-산방산

(셋째날) 성산일출봉-성읍민속마을-정방폭포-제주민속박물관

▲관덕정-4·3의 도화선

관덕정은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내려오는 신장영도, 적벽대첩도, 대수동 등의 격조높은 변화가 있다. 1947년 3월 1일 4·3의 도화선이 되었던 3·1절 발포장이 이 일대이다.

▲동광리 관덕정

4·3 당시 토벌을 피해 동광리 사립 120여명이 50-60일 동안 숨어있었던 곳이다. 한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입구를 통해 기어올라가면 개천 그쪽, 용기파란, 고구산조지 등이 아직도 내려있어 그 당시 상황을 연상케한다.

▲알뜨르 비행장

8·25일 밤 제주로부터 보낸 항공기와 입산자 가족들이 대기 걸속 채 많은 인원이 처형되었던 시기

▲정방폭포-아름다운 폭포의 숨겨진 한

비디오 직접 촬영하는 동안 유망의 해안도로로 유명하다. 영주 12경으로 꼽히고는 이 폭포 역시 4·3 당시 난자당한 시신을 폭포속으로 떨어뜨린 남해주군에서는 가장 큰 희곡이었다.



소설 <토지>의 무대 - '하동'



4·3항쟁을 다시 배운다- '제주도'

외대/학/보/수/습/기/지/모/집/광/고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 최초의 한글전용 신문
- 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유일하게 진실을 보도한 신문
- 전국대학신문에서 최초의 12면 발행

외대학보에는 청년학생의 과감성과 자존심이 있습니다.
00학번 신입생 여러분!
외대학보의 주인이 되십시오.

민족민주언론
외대학보